



제47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정기총회가 18일 오전 10시 30분에 한미장로교회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지옥 없다” 는 목사 주장에 성도 1천명 이탈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지옥은 없고 모두가 천국에 간다”는 주장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한 목회자의 교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 성도 1천여 명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스힐바이블교회(Mars Hill Bible Church) 창립목사이자 담임목사이던 롭 벨(Rob Bell) 목사는 저서 ‘사랑이 이긴다(Love Wins)’의 발간으로 단번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중 한 명이 됐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아무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세간의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보수 복음주의 교계는 책이 “사실상 지옥이 없음을 선언한 것과 같다”며, “벨 목사가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를 전면 부정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보낸 바 있다.

2012년 벨 목사는 집필과 강연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직을 사임했고 현재는 켄트 돕슨(Kent Dobson) 목사가 목회를 맡고 있다.

19일 돕슨 목사는 벨 목사의 책이 논란이 되던 당시 “성도 1천여 명이 나갈 정도로 여파가 컸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가 현재는 이 같은 혼란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돕슨 목사는 “당시 벨 목사의 책과 관련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때는 지나간 듯하다”며 “올해는 안정기에 접어들 때가 된 듯하며 우리가 새로운 장을 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마스힐교회는 주일 예배 인원이 3천여 명에 이른다.

돕슨 목사는 한편, 이탈한 1천여 성도들에 관해서도 “그들이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단지 마스힐교회가 자신들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랑이 이긴다’는 최근까지도 높은 판매율을 보이며 많은 온라인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다

손현정 기자

## 남가주목사회 역사상 첫 여성 수석부회장 뽑혀

제47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정기총회가 18일(월) 오전 10시 30분에 한미장로교회에서 22명이 참석해 열린 가운데, 수석부회장인 정종윤 목사가 회장으로 인준, 부회장인 백지영 목사가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특히 여성 목회자인 백지영 목사가 목사회 역사상 최초로 수석부회장이 됐다.

이날 정종윤 목사(임마누엘교회)는 “증경회장단의 협력으로 차기 목사회를 잘 이끌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증경회장단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칙 수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제48회 정기총회부터는 선거제를 도입해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또 연합과 화합을 위해 매년 회장 선출을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지난 제46회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회칙 수정 건이 이번 총회에 반영이 되지 않아 한동안 의견이 갈리

기도 했다.

제46회기 목사회 총수입은 1만 3156불, 총지출 5033불 10센트, 이월금 8122불 90센트이며, 한미기독교회관 모금내역으로는 총모금액 3만 3410불, 총지출 1만 193불 41센트, 잔고 2만 3216불 59센트로 발표했다.

1부 예배에서는 이우형 목사가 사회를, 이운영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명예”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토마스 맥 기자

## 백지영 목사 “여성의 리더십으로 연합 도모”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7회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이 된 백지영 목사는 단독 출마했기에 사실상 투표나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목사회 회칙상 백 목사는 차기 회장으로 자동 승계된다.

이로써 남가주 교계는 목사회 47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수석부회장을 배출했으며, 내년이면 최초의 여성 회장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시카고 등 타주의 경우는 간혹 여성이 교계연합단체의 장이 되기도 했지만 남가주에서

는 최초다.

백 목사는 목사회에서 상당히 굵직한 인물로 통한다. 목사회에서 17년간 섬겼으며 부회장은 7년에 걸쳐 감당했다. 그는 이번에 30여 명 목회자들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했으며 목사회가 규정하는 모든 조건에 부합돼 결국 수석부회장에 이르렀다.

백 목사는 “많은 분들의 추천과 격려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며 “여성 목회자로서 많은 부담이 있지만, 남가주 교계에 여성의 리더십

을 발휘해 화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솔로몬대학을 설립해 26년간 총장으로 봉직하고 있으며 SL임마누엘선교회에서 35년간 목회했다. 2012년에는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제3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백지영 목사

## 무신론자들, ‘크리스마스와의 전쟁’ 시작

최근 미국에서 매년 이맘 때면 벌어지는 무신론자들의 ‘크리스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앞장서고 있는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RF)은 많은 미국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제거하고 단순한 축제일로 축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이 단체는 크리스마스 대신 동지(冬至)를 기념하자는 다소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놓아 기독교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단체는 공공장소의 크리스마스 장식물 설치에 반대하는 활동으로도 악명이 높다.

기독교 권의 옹호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의 법률 자문위원인 제레

미 테데스코는 “많은 교육 담당자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무신론자 단체들이 전파하는 잘못된 정보와 위협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무신론자들의 크리스마스 전쟁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작년 미국 설문조사 회사인 퍼블릭폴리시폴링(Public Policy Polling)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47%의 응답자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보다 적은 수인 40%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손현정 기자

다음 주는 휴간입니다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 제 6기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5기 생 교육을 무사히 완료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으로 시작한 의료 선교사 육성 사업은 축복 가운데 6기 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 재단에서만 시행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손 하나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치료술을 교육하며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수료가 끝난 의료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불모지에서 치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게 되며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에 임하시게 됩니다.

### 〈모집 안내〉

**응모 자격** :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으로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신 남녀 성도 분

### 모집 대상

1. 목회자 또는 선교사 ( 해외파송 희망 선교사 )
2. 평신도로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시고 의료선교사로서 사역을 원하시는 분
3. 수기 치료술을 배워 단기 선교나 의료 봉사를 원하시는 분

**모집 인원** : LA 지역 남녀 20명 / Orange County 지역 : 남녀 20명 (교육의 향상을 위해 인원을 제한함을 양해 바랍니다)

**교육 기간** : 총 20주 (매주 2회, 2시간 교육)  
 LA지역 : 화요일, 목요일 교육 / OC지역 : 금요일, 일요일 교육

**교육 장소** : LA지역 1543 W. Olympic Blvd, Suite 505, LA CA 90015 (성박사시 건물)  
 OC지역 8102 - 2 Garden Grove

### 수료 후 특전

1. 선교사 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 파송 선교지 추천 및 재정 지원
2. 부부가 수강 신청 시 한 분은 청강생으로 수강료 면제 합니다.

### 교육 내용

1. 근육 교정학 : 통증을 전문 치료하는 의술.
2. 체형 교정학 : 변형된 체형을 교정하는 의술.
3. 척추 교정학 : 바른 척추를 만들어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의술
4. 영양 물리학 : 식품의 영양과 인체의 영양 (자연식의 원리)

### 교육의 특성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교육은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을 사용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로서 한의학, 카이로 프랙틱, 근육전문 치료학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여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술로서 단기간에 완속된 의료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강 일자** :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접수 마감** : 2013년 11 월 30일 (토요일)

**접수처** : 세계 의료 선교사 육성 재단  
 213) 381-7273 213) 605-2928

**교육 강사** : 박승부 장로( Dr. Charlie Park)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전 국제 대체의학 전문대 확장



복음선, 강변에서 인도, 진료, 한양과 용동으로 함께..





동부사랑의교회가 창립 7년 만에 시무장로를 세우는 축제의 날을 맞이했다.

### 동부사랑의교회 창립 7주년 임직식

동부사랑의교회(담임 박승규 목사)가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아 시무장로 3명을 포함해 총 34명의 중직자를 세웠다. 이 임직식에는 노창수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박현식 목사(얼바인사랑의교회) 등 사랑의교회 관계자들과 박상목 목사(PCA 서남노회 노회장), 신정훈 장로(PCA 서남노회위원장) 등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개척 5년 만에 1천여 명으로 부흥 성장하고 자체 성전까지 마련했다. 이번에는 시무장로(김상현, 박찬웅, 정학정), 협동장로(배준모, 신홍중, 이상연, 이용호, 이철, 임관순, 장상우, 강종대), 안수집사(강형규, 김세현, 김크리스, 오홍주, 이은철), 협동안수집사

(강정환, 김대현, 안병서, 이양훈, 최태식, 하준기), 명예안수집사(이흥구), 시무권사(강선희, 김민이, 배영지, 오경애, 이옥숙, 장숙자, 조금선, 황재규), 명예권사(김순복, 김정희, 임화자) 등이 임직했다. 박승규 담임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한다. 감사 외에는 더 할말이 없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인규 기자

### 미주장신대 36주년 기념예배 및 후원의 밤



이날 미주장신대 후원의 밤에는 약 150여 명이 참석해 후원에 힘을 모았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상명 총장)가 개교 36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을 18일(월) 저녁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었다. 이상명 총장은 후원 요청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 "미주장신대는 지정 학적으로 전세계 중심에 위치해 남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로 갈 수 있고, 양질의 신학교육을 통해 전세계를 향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1세와 1.5세, 2세가 함께가는 신학교로 발전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을 성취하며 앞장서 나가겠다.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이사회 서기인 박성규 목사(주님세움교회)도 "이상명 총장은 비전메이커인 동시에 아카데미라고 기도하며 감화력이 있는 현 시대 보기 드문 총장"이라며 "위기인 현 시대에 나라가 바로 서려면 영적 사관학교인 신학교가 바로서야 한다. 사람을 기르는 선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다양한 학교 후원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학교 측은 △인어문화센터 설립 △전임교수 채용 △도서관 확장 △시설 정비 등을 위해 후원을 요청했다. 또한 실내악 연주와 학교 합창단의 합창이 있었으며, 설교는 이사장인 김인식 목사가 전했다. 미주장신대는 △양질의 신학교육 △역동적인 영성교육 △글로벌 리더십교육 △인문학적 교양교육 △실제적인 이중언어교육 등의 비전을 표방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 세계 최초 파스텔 성화 전시회

한국 서양화단의 원로 신동원 화백이 세계 최초로 파스텔로 그린 성화(聖畵)들을 소개하기 위해 LA를 방문했다. 신동원 화백(서울성은교회)은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한 성화 작품을 감상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작품들은 신 화백이 성경 말씀 목상을 통해 얻은 영감을 직접 작품화했다. 총 20점이 전시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마 27:32),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행 1:9),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눅 9:40),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눅 22:39) 등의 작품이 선보이게 된다. 비영리 자선단체인 예스미션인터내셔널(Yes Mission International)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파스텔 성화작품 전시전은 17일 세계대교회, 22일 나성순복음교회, 24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작품 판매 수익의 일부는 교회 선교비 등에 기



신동원 화백의 작품 부할 계획이다. 신동원 화백은 그동안 국전, 한국 전통미술대전 등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쳐 왔으며, 한국 미술협회 정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의 작품은 청와대, 국정원, 독일한국대사관 등 기관 및 각종 호텔, 병원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전시문의: 213-388-5000 토마스 맹 기자

### 사랑의빛선교교회 영성집회로 부흥의 새 장

사랑의빛선교교회 담임 윤대혁 목사가 지난 3일 담임목사에 취임한 이래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영성집회를 열고 있다. 15일 저녁에 두 번째 금요일 영성집회를 연 가운데 강단에 선 윤대혁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치고 싸매고 낫게 하는 분이시다. 나의 죄적인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맡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윤대혁 목사는 직접 찬양과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했으며, 한국과 이민 교회의 회복, 선교지, 교회 교육



윤대혁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부, 성도 개인의 기도제목 등을 놓고 성도들과 합심 기도했다. 윤 목사는 얼마 전 취임시 하나님께 앞도리어 기도하며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성도들과 약속했다. 토마스 맹 기자

### 남가주권사성가단 유카탄 한인 후손 돕는다

남가주권사성가단(김경숙 단장)이 창단 16주년을 맞아 제 11회 정기연주회를 17일 오후 7시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권사성가단은 '너 어린 아이 같은 맘으로', '기뻐 기뻐 노래해' 등 9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또 테너 이준실, 홍민성, 소프라노 신하민, 지휘 박성훈, 피아노 한국희, 오르간 은원주, 플루트 권예지 씨 등이 참여해 연주회를 빛냈다.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는 "교회

의 어머니로서 이롭고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권사님들께서 주변의 힘없고 약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찬양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연주회를 통해 모금된 현금과 수익금은 멕시코 한인 후손인 유카탄 무지개학교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토마스 맹 기자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팅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이 시대 젊은이들이 성령의 불로 변화되는 현장! 더 높은 부르심 앞에 서는 현장!

# 2013 미주청년학생 겨울수련회

## HIGHERCALLING13

12/26 (목)-12/29(일)  
San Diego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FRANCIS CHAN  
The author of "Crazy Love"

DAVE GIBBONS  
Newsong Church

JIM-BOB PARK  
Oriental Mission Church

and DONG WHAN KIM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USA

**REGISTER NOW**  
www.gohighercalling.com

\$190 by DECEMBER 9  
\$240 on DECEMBER 26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주관 2013 HIGHERCALLING 준비위원회  
주최 KCCC USA  
NexGen Pastors Fellowship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명예대회장: 손인식목사 송경명목사  
대표대회장: 박희민 목사

Higher Calling Headquarters  
213.389.5222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Email : gohighercalling@gmail.com

대회일정 : 2013년 12월 26일(수) - 29일(토)  
대회장 : San Diego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3000명  
등록방법 : www.gohighercalling.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Higher Calling Conference 또는 HCC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필리핀 태풍 피해에 세계 기독교 구호단체들 현지에서 발빠른 사역 시작

# 굿네이버스, 태풍 하이엔 피해 지역 구호활동 착수

## 10만 불 규모 지원 결정, 마닐라에서 긴급 구호식량 키트 마련 중

역대 최강 위력의 태풍 하이엔(Haiyan)이 필리핀을 덮친 후 아직도 긴급원조가 이재민들에게 이르지 않아, 현장에서는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1만명의 사상 피해자와 7백만명의 난민이 추정되는 가운데, 11월 11일(월) 굿네이버스는 필리핀 피해지역에 10만 불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8일 필리핀 중남부 지역 동부 해안에 상륙한 태풍으로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알바이와 소로소곤 주 및 중부 지역 레이테 주 등 필리핀 내 36개 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추정되는 사망자만 1만여 명에 달하며, 36개 주, 98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피해지역의 도로가 파손되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통신수단도 두절되어 피해지역에의 접근이 불가해, 지역 내 식품 및 식수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 지역의 마비 상태가 심각해 국내 및 국외의 도움이 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UN OCHA(국제 연합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식수, 음식, 임시 주거지 및 의료 용품 및 진료이다.



필리핀 태풍 피해자들의 구호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필리핀 지부를 통해 1차로 10만 불 규모로 피해지역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11일 필리핀 지부의 현장조사팀 4명을 파견하여 주요 피해지역인 타클로반 및 사마르 지역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마닐라에서 긴급구호 식량 키트를 마련해 이재민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1999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지부를 설립하여 필리핀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지난 5년 동안에는 특별히 매년마다 지속되는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및 재난대피시설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32개 빈민국가에서 국제 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4년 르완다 난민촌 캠프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구촌 곳곳의 전쟁 및 재난 지역을 찾아다니며 전문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리아 내전에서 발생

한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15,00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구호 활동을 실행하여, 세계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주고 있다.

후원 신청 및 문의: 323-227-8383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org  
김나래 기자

# 월드비전, 필리핀 태풍 복구에 총 6백만불 모금 추진



구호물품들이 독일을 출발, 필리핀 마닐라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실리고 있다.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은 11일 월드비전 재난대응 최고단계인 카테고리 3(100만명 이상의 피해자 발생하거나, 총 인구의 50% 이상에게 피해를 미치거나, 하루 사망자가 1만명 이상인 재난)을 선포했다.

현재까지 하이엔으로 인해 약 7백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 중 170만명이 어린이들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 피해 지역의 교통이 거의 단절되고 정전이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필리핀 월드비전 긴급구호 홍보전문가 아론 아스피 씨는 "이 태풍은 정말 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심각하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잿더미가 된 도로를 치우고, 전기를 복구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시간을 다투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풍 피해지역에는 레이테 주, 동사마르(Samar), 파나이섬, 세부르 비롯해 지난달 지진이 발생했던 보홀(Bohol)도 포함됐다. 이 지역 내에는 월드비전이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던 19개의 사업장도 포함됐으며, 약 30,000명의 월드비전 결연아동 가정 이 이번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월드비전에서는 3개조의 피해조사팀을 지난 주말 보홀, 사마르와 레이테 주, 그리고 파나이 섬에 급파했다.

국제월드비전은 총 6백만불 모금을 통해 총 22만5천명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실시하고자 추진 중이며, 독일월드비전이 지원하는 단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제월드비전은 삶의 터전을 잃은 태풍 피해 주민들에게 식수 및 위생 키트, 식량, 주거지를 제공하며, 무엇보다

교육의 기회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해 임시 교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피해 주민의 심리적 치유 및 안

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긴급구호를 위해 현지 월드비전 직원 5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태진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테바 선교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상식 통하는 뉴욕교협” 예배 드리고 힘찬 출발

취임 김승희 목사 “교협 개선 위해 노력”  
이임 김종훈 목사 “한 회기동안 평안에 감사”



뉴욕교협 40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4일 오전 뉴욕초대교회에서 진행됐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14일 오전 10시 30분 뉴욕초대교회에서 제40회기 시무예배와 회계·이사장·임시행위원 이취임식을 열고 한 회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1부예배는 이재덕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한재홍 목사(증경회장) 시무기도, 이수원 장로(회계) 성경봉독, 뉴욕초대교회 헌성중찬단 특송, 방지각 목사(증경회장) 말씀, 이주의 장로(평신도부회장) 헌금기도, 최예식 목사(목사회 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이취임식은 장경혜 목사(총무)의 사회로 최창섭 목사(증경회장) 기도, 김종훈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회 인계, 민승기 회장(뉴욕한인회) 축사, 김선훈 목사(필라교협회장) 축사, 김용걸 신부(증경회장) 권면, 김승희 목사 취임사, 박영진 장로(신임 이사장) 취임사, 위촉장 수여, 감사패 증정, 송일권 목사(서기) 광고, 신현택 목사(증경회장) 폐회 및 오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새롭게 취임하는 김승희 목사와 회장직을 이임하는 김종훈 목사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소감이 주목됐다. 김승희 목사는 뉴욕교협을 향한 뉴욕교계의 관심과 변화를 위한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쉼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김종훈 목사는 한 해 동안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김승희 목사는 취임사에서 “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

사를 드린다”면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어주신 신앙의 여러 동지들께 진심으로 다시 감사드린다”면서 그간의 여정 가운데 함께 발걸음을 해준 이들에게 감사사를 먼저 돌렸다.

이어 김승희 목사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이 끝나는 숫자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예수님은 40일동안 광야에서 살아가셨다. 그런데 모세는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서 “40회기 때 회장직을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승희 목사는 “그동안 교협을 향한 많은 바람과 목소리들을 들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상식이 통하는 교협, 보통 사람이 나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교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목사는 이취임식 이후 인터뷰에서 뉴욕교협의 개선 사항과 관련, 우선적으로 선거제도의 수정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날 이임사를 전한 직전회장 김종훈 목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일을 하지 못더라도 큰 문제 없이 한 회기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감을 먼저 말했다.

이어 김종훈 목사는 39회기 가운데 교회회합과 관련해 “한 회기 동안 제 마음 속에 있었던 간절한 기도제목은 교협이 평안해야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기

도해왔고 힘써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서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이 시간 제 마음 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김종훈 목사는 “스위스 정신의 학자가 사람이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중 첫째는 결혼생활, 둘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했다. 교회연합의 일도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았다”면서 “교협 산하 여러 교회들이 물심양면으로 힘써 도와주셨고 그 도움이 없었다면 39회기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힘써주신 임원들에 모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40회기를 향해서는 “뉴욕교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40회기를 이끌어갈 회장 목사님과 임원들 실행위원들 위에 함께 하실 것”이라면서 “하나님이 계속 교협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뉴욕 교협은 회기의 첫 사업으로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돕기 위해 나선다. 뉴욕교협은 “6.25전쟁 당시 유엔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한국을 위해 함께 피를 흘린 우방이었던 필리핀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서 “교회에서 앞으로 할 것인 이재민 헌금을 위해 광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금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 제39대 워싱턴교협

### “연합 나눔 섬김”



워싱턴교협 임역원 및 자문위원 간담회가 11월 14일 팰리스에서 열렸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가 11월 14일(목) 오전 11시 애난데일 소재 팰리스 식당 연회실에서 임역원 및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제39대 워싱턴교협의 목표 및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1부 예배는 노규호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김영천 집사(교협 평신도 부회장)의 기도, 정일남 목사(교협 부총무)의 말씀봉독, 한철우 목사(증경회장연합회 회장)의 설교, 임낙길 목사(교협 부서기)의 합심기도(한국, 미국 및 교계와 교협을 위해) 인도, 박상섭 목사(교협 총무)의 광고, 이원희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한철우 목사는 사도행전 20장 17-24절을 본문으로 “오직 선교 일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뿐이다. 이 복음을 통해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책임이 워싱턴교협에 주어진 것”이라며, “사도 바울이 오직 선교 일념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제39대 워싱턴교협도 전력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축원했다.

2부 시간에는 회장 최인환 목사가 제39대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교협 임원진을 소개했다.

최 목사는 “제39대 목표는 연합(교회 연합), 나눔(은혜 나눔), 섬김(사랑 봉사)이다. 영어로 하면 Union, Sharing, Attentive, 즉

USA다. 임원수칙은 ‘목사담게, 종담게, 제자담게’로, 주제 성구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에베소서 4:1)로 정했다”며, “선배목사님들과 회원교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9대 워싱턴교협 임원진은 회장 최인환 목사(콜럼비아한인침례교회), 부회장 노규호 목사(그레이트사이드한인교회), 평신도 부회장 김영천 집사(후랜코니아교회), 재정이사장 정세권 장로(와싱턴중앙장로교회), 총무 박상섭 목사(워싱턴예배장로교회), 부총무 정일남 목사(소명감리교회), 서기 이태봉 목사(에드립교회), 부서기 임낙길 목사(국제선교교회), 회계 홍덕진 목사(제자선교교회), 부회계 노요섭 목사(워싱턴베다니교회)로 구성됐다.

7대 사업계획은 성탄축하음악예배(12월 8일 오후 6시 열린문장로교회), 신년하례(2014년 1월 6일 오전 11시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여성목회자 간담회(2월 17일)와 언론인 간담회(2월 24일), 부활절연합새벽예배(4월 20일 오전 6시 토마스제퍼슨기념관), 전도 및 부흥집회(7월 26-28일, 강사는 LA한인침례교회 박성근 목사), 복음화 대성회(9월 18-21일) 등이며, 협력 사업으로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사예배(1월 19일)와 선교사마를 방문(6월 30일-7월 2일)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의 : 703-629-0691  
주요한 기자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213)386-3585

**SANSAM** 산삼(인디언이캔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체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전문사역자 활동
- 문의 : 213.392.2323

## Special Seminar for Minister Ordination Candidate

### 52차 목사, 선교사 후보 안수교육 세미나

#### 52 차 목사, 선교사 안수 코스 안내

국제복음주의협회(IEA, 1983년 설립)는 미국 연방정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교육선교, 의료선교, 교회개혁, 목회자연장교육, 초, 중, 고등학교, 대학, 신학교등을 설립하며 목회사역을위해 세계선교사역을 주도해 나가는 초교파적인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시대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참신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전문사역자로 세워 함께 시대적 소명을 이루고자 그 일환으로 전문분야 목사, 선교사 안수코스를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 신청자격

- 1) 신학교 졸업자 (남,여) 전도사 경력 10년 이상인자
  - 2) 목회학, 선교학 석사이상 소지자로서 전도사 혹은 선교사 경력 2년이상자
  - 3) 평신도선교사 혹은 장로 10년 이상인자로서 목회 혹은 특수전문분야에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IEA가 주관하는 목사안수 코스(목회학 석사과정)에 준하는 목회과정)을 이수하면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 \* 사역분야- 음악분야, 교육분야, 목회분야, 상담분야, 복지분야, 교육, 원목  
\* 예식전문목사- 장례, 결혼, 선교분야, 직장 영성분야  
(목사 라이선스와 전문사역분야 Certificate 자격증)

#### IEA 사역과 특성

- IEA에서 목사안수 받은 많은분들이 각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있음
- 1) IEA 소속 사역자로 신분보장, 국제적 활동 가능
  - 2) 교파를 초월한 초교파 복음주의로서 60여개국에서 전문사역자 활동
  - 3) 자매협력기관- Midwest University, 국제교육협력기구(IEC),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GLI) Global Gateway University, 국제상담협회(ICA) Kimmnet, KWMC, 한국기독교교회연맹, 세계크리스찬스쿨 네트워크.



**52 차 목사, 선교사 안수 교육 코스 안내**  
신청접수 : 2013년 10월 1일부터 - 12월 20일까지  
제출서류 : IEA, 소정양식 및 첨부서류 (자세한것은 직접문의)  
서류심사 인터뷰 - 교육과정 이수 - 목사고시 - 후보선정 - 안수식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목사안수 특별교육 안내**  
특강: 2014년 1월 27일(월) - 30(목).  
장소: IEA 국제본부  
843 Parr Rd, Wentzville, MO 63385  
전화 (636) 639-9221, 070-8690-2662.  
Email: info@ieawm.org

**한국-목사안수 특별교육 안내**  
특강: 2014년 1월 13-16일 까지  
장소: IEA 한국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서울기독교회관 810호  
02-3672-4514 / 070-8834-4516  
Email: seoul@ieawm.org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ieawm.org](http://www.ieawm.org) 방문 하셔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안수받으실 분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상호 협력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나 기관은 IEA 회원이 될수 있음.



국제복음주의협회(IEA) International Evangelical Association [www.ieawm.org](http://www.ieawm.org), e-mail: info@ieawm.org

# 히스기야왕의 기도와 응답

## 열왕기하 20: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열왕기하 20: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4 이사야가 성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만에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겠고 6 내가 네 날을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7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체에 놓으니 나오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그 허점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하여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은혜보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미신, 우상 섬기는 것을 좋아해서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문을 봉하게 하며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마다 산당을 만들어 온갖 우상을 끌어들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16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도 치욕과 고통의 연속인 비참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대 임금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정치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앗수르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결국 전사하고 말았는데, 그의 시체마저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 치루지 못하고 버려지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16년간 정치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도 수난과 하나님의 채찍을 계속 맞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상선벌악(賞善罰惡)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펼쳐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시대에 수난 당했던 선지자들을 전국에서 모이도록 하고 레위족들을 소집하고 성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여 깨끗하게 꾸미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일에 각자의 소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하며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동안 섬겨왔던 미신, 우상을 서둘러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열왕기하 18:4-6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뿔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정치적으로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앗수르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해 오면서 앗수르 왕 산헤립에게 종노릇해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은 물론 온 민족이 서둘러 회복해야겠다는 정책을 펴면서도 그는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기에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정치를 잘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주변 약소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앗수르를 막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정치가로서 유능한 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다 왕은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세상의 정책과 전략의 흥내를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차례 충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서있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는 것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동맹한 국가 중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그의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자식들의 혈통입니다(창19:30-38).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나라를 히스기야왕은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그들과 연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책망했던 그대로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13-16에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앗수르 왕이 곧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와 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한 히스기야 왕에게 확실한 경

험을 통한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앗수르가 요구한대로 다 주었는데도 유다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이제는 히스기야의 어떠한 지략과 수단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체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9:15-19를 보면 “그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훼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전하게 하고 앗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과 그 군대를 내일 밤까지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니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유다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심판관 오전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15:35)”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최고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만했던 것들이 어리석었던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의지하는 자기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다급한 상황에

서라도 가장 안전한 구원을 보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앗수르가 멸망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오던 히스기야는 작은 종치가 커지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침공 때 자신이 드린 기도의 응답을 기억했습니다. 이사야가 사형선고를 전하고 돌아간 후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만에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치가 온전히 나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삼 일만에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새로운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신앙발전의 역사를 섭리하셨습니다. 만약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겪은 쓰라린 경험이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경험이라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적으로 회개했던 히스기야의 온전한 믿음과 그의 기도응답의 발전이라는 체증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받아들여 지길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T V 한국 방송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크리스천 투데이   |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경복 기독교 신문  | 3면 설교   |
|              |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T V 미국 방송 설교 |                        |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br>토요일 오전 7시 | 목요일 낮 12시<br>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40 라디오 코리아<br>주일 오전 8시30분 / 동영상 설교 제공     |
| CTS TV       | 수요일<br>토요일             |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br>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br>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 미국 신문 설교     |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 기독일보         | 5면 설교<br>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br>오프라인 칼럼 설교                          |   |
| 크리스천 헤럴드     | 7면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AM1310 기쁜소리방송<br>화요일 오후 7시30분<br>금요일 오후 2시30분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위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9월 9일 개강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스포츠선교학 Ph.D 과정

## 나의 할머니는 구원을 받으셨을까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제게는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모든 할머니가 그러하듯이 할머니는 저에게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동생이 태어나서 제가 어머니의 품을 떠났을 때, 저는 할머니의 빈 자를 뺏았고, 할머니의 품을 차지하기 위하여 누나와 다투어야 했습니다.

사랑이 많았던 할머니는 서울의 작은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하셔서, 작은 집이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방학이면 매년 서울을 올라가서 할머니를 보고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하며 방학을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두우셨으나 바느질을 잘 하였고, 저는 즐거이 실을 바늘에 꿰어 드렸습니다. 저는 점점 성장해 갔지만, 할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제가 고2 때에 할머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인적이 없던 저지만, 위암으로 신음하는 할머니를 위하여 나가지 않던 집 근처의 교회당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할머니의 위암을 고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머니를 고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

시고 난 지 약 1년 후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누님은 할머니의 영혼을 위하여 한동안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배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바라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랑했던 할머니이시기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수는 있지만, 감성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자신의 공로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것처럼 사랑이 많은 할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써 저의 곁에 계셨던 할머니이지만, 저는 할머니께서도 저와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의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공평하게 저의 할머니의 거취를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미래에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무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에게, 조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과 영적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가족 구원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쌓는 것입니다.

##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12)



이영두 목사  
호크마신학대학교 학장

외국인들이 한국사람들을 만나면 첫 대화가 ‘빨리 빨리’ 아니면 ‘나 김치 좋아해’다. 한국의 식품 문화와 한국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외국인이 싫지가 않다.

그런데 이 말들을 분석해 보면 ‘빨리 빨리’는 급한 성격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 표현한 것이고, 김치는 발효된 음식이 인체에 유익을 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

오늘은 육체의 소욕 중 분노, 분냄에 대해서 우리 문화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자.

#### 육체의 소욕에서 떠나라(갈 5:17, 엡4:31)

분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의분이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같다고 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외식된 삶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다(마 23:25).

즉 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

시고 분노하신 것이다. 영적 성숙의 삶이란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하게 하여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죄와 관련된 부분이다. 성경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엡 4:31)고 하였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징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도 가끔 교회 안에서 분노하는 것을 본다. 의분

이면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이 있기에 분노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자존심의 손상, 명예의 손상을 입을 경우 크게 분노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분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감치처럼 숙성시켜야 하는데 숙성시킬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고 빨리 빨리 대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혼자 생활을 하면 분노가 일어날 일이 없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자신의 부족함,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다. 상대의 부족함에 대해 과격한 말을 하지 말고 유순하게 하는 것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엡 4:32)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분노는 다스려져야 한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분노를 대처하는 능력의 차이이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 교직과 소명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크리스천사립학교

선생이란 직분을 맡아 살아가는 것 같이 보람된 일은 없는 것 같다. 적어도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국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될 때 느끼는 희열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필자가 대학원생 때 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 중 한 명이 생각한다. 그는 벨리에 있는 좋은 공립고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해온 학생이었으나, 10학년 첫 학기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결국은 ‘카-잭 킱(자동차 탈취)’까지 하게 되었다. 부모가 필자에게 도움을 청해 왔고, 필자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누우치도록 수십번 대화를 나눴다. 감사하게도 학생은 마음을 돌려 다시 대입준비에 몰두했다. 결국 2년 후 UCSD에 입학하게 되었다. 녀석이 대학 입학 소식을 전화로 알려왔을 때 느낀 희열은 차마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전화를 통해 환호를 외치며 돌이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대학 졸업 후 샌주리시티에 소재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직장을 잡았고, 지금도 매년 명절 때 과일 한 박스를 사 들고 필자를 찾아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은 소명에 관련된 일이다. 소명을 갖고 하는 일은 돈이나 명예로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 그런데 필자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은 노골적으로 학교에 출근하기 싫다고 말

한다. 그 이유는 봉급이 적어서도 아니요, 출근하는 학교가 멀어서도 아니다. 이 선생은 소명 없이 교직을 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선생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다수의 선생은 봉급 및 혜택 때문에, 그리고 뚜렷한 다른 일을 찾지 못해 교직을 택하기도 한다.

교육문제를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생과 부모의 문제도 크지만, 선생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교사라면 무조건 혜택이나 여건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우선 자신의 소명을 명확히 깨달은 후 학생을 지도해야만 교육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기독교 학교 교사라면 교직에 대한 직업적 소명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서야겠다. 오스 기네스는 소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의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일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어머니의 역할이나 정치나 교직)으로나 어디(도시 빈민가나 몽골)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2차적인 소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 주부나 범조인으로 혹은 교직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2차적인 소명으로서 적절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어디까지나 2차적일 뿐 1차적인 소명은 아니다.”

올은 말이다. 이시간 필자도 교사로서의 소명, 그리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가르치는 것은 적어도 나로서는 (1)꼭 하고 싶은 일 (2)내가 잘하는 일 (3)남들도 잘한다고 인정하며 격려하는 일 (4)공정적인 열매를 맺는 일 (5)부끄럽지 않은 일 (6)창조주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 주신 일이라 믿기에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래서, 내려놓으란 그분의 명령이 있기까지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도 난 학생을 사랑하고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으로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선을 다짐한다.

## 제44대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저희를 위해 관심과 크신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교역자들이 하나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44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12월 1일 (주일) 오후 4시
- 장 소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목사)
- 주 소 :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 문 의 : 교회(323)913-4499 / www.lafgc.com



- 회장단**
- 회 장 : 박효우 목사
  - 수석부회장: 원영호 목사
  - 부 회 장: 강용순 목사, 강준민 목사, 고재원 목사, 김광수 목사, 김바울 목사, 김선국 목사, 김성민 목사, 김성일 목사, 김영배 목사, 박형은 목사, 서오석 목사, 이동준 목사, 이우형 목사, 이주철 사관, 이춘준 목사, 정우성 목사, 정영희 목사, 지운성 목사, 최 혁 목사
  - 사무총장: 박세현 목사
  - 총 무: 홍성관 목사
  - 부 총 무: 정충일 목사, 김영구 목사, 김성실 목사
  - 협동총무: 남철우 목사
  - 서 기: 차권희 목사
  - 부 서 기: 김호곤 목사
  - 회 계: 김철수 목사
  - 부 회 계: 진석호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 churches3000@gmail.com www.thecke.org



#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D.M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래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기관협의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증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교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 가지 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박사 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교육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래어몬트 신학대학교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그 학사과정, 교수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착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 | 입학설명회 |

- ▶ 날짜 :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 ▶ 장소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Haddon Conference Room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 ▶ 문의 : 이효주목사 koreandmin@cst.edu/  
973-713-3009

## | 입학원서 마감일 |

- ▶ 2014년 1월 입학 : 2013년 9월 1일까지
  - ▶ 2014년 5월 입학 : 2014년 2월 1일까지
- 입학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입학요건 |

- M.Div. 학위 혹은 동등학위 소지자 (동등학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학교 웹사이트 참고) <http://media.cst.edu/uploads/genericfile/korean-d-min-application-instruction.pdf>
- 각 학위성적(GPA) 3.25 이상 선호
- M.Div. 학위나 동등학위 취득후 3년 이상의 full-time 목회경험
- 본 과정은 한인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교수가 한인 교수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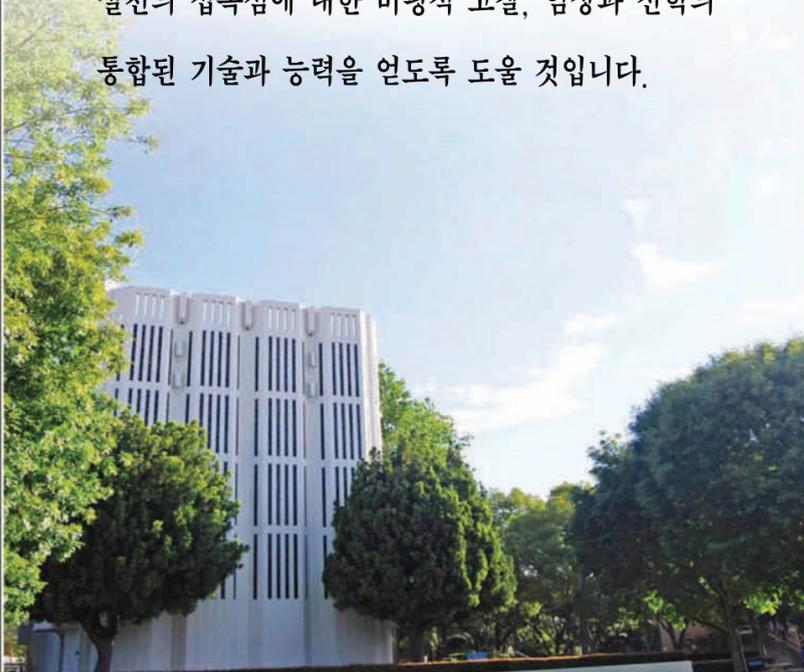
- 올해부터 목회학박사 학점과 이수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학점: 32학점=> 28학점
  - 이수기간 : 5학기(2년 반)=>3학기(1년 반)
- 수업료: 2014년 여름부터 학점당 \$715 -> \$600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최고지도자 과정" 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 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For More Information - [www.cst.edu](http://www.cst.edu)

- 이효주 목사 (Associate Director)  
koreandmin@cst.edu / Tel. 1-973-713-3009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 美 법원, 9.11 박물관 ‘십자가 철거’ 소송 기각시켜

### “역사 알리는 데 도움 주는 조형물” ... 원고측 무신론자들 항소

최근 미국 법원이 9.11 기념 박물관에 위치한 십자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원고측인 무신론자 단체는 항소했고, 미국법과정의 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는 이 단체를 향해 “문자 그대로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CLJ의 관계자는 “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전체적으로 적합하고 합법적이었다. 특히 박물관의 큐레이터는 9.11 기념 박물관에 놓인 십자가의 실제적·역사적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물관은 종교적인 주제를 지닌 작품이나 혹은 예술적·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작품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전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항소법원 역시 이

에 대한 법적인 도전을 기각한 지방 법원의 결정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뉴욕시 소재 ‘국립 9.11 기념 박물관’에 전시된 ‘크로스 메모리얼(The Cross Memorial)’은, 약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발생 후에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인 상징물이 됐다.

미국의 무신론단체인 ‘미국 무신론자(American Atheists)’들은 지난 2012년 “박물관에 십자가를 설치한 것은 불법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미국 지방법원의 데보라 배츠(Deborah Batts) 판사는 “이 조형물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다른 세속적인 조형물에 둘러

싸여 있으며,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안내물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의 목적은 9.11을 둘러싼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신론 단체는 “십자가 조형물이 ‘죽은 자들을 기리려는 비기독교인들’을 소외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십자가는 국립 9.11 기념 박물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또한 17피트의 높은 기독교 십자가는 기념관 내에서 가장 큰 조형물이다. 이 십자가는 다른 모든 종교적인 대상들을 압도한다”고 주장했다.

ACLJ는 이에 대해 “미국 대법원 판례는 십자가와 같은 전시물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교설립금지 조항에



세계무역센터 터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9.11 테러로 목숨을 빼앗긴 이들의 상징물이 되었다. 이 십자가는 9.11 테러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로 만들어졌으며 박물관에도 전시됐다.

도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역사를 아는 것이 종교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4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

박물관은 사진, 기념품, 2대의 소방차, 앰블런스, 세계무역센터 건물 일부분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강혜진 기자

## 이집트, 핍박 속에서 더욱 불타오른 신앙 열정

### 기독교 집회에 약 2만6천명 참석

기독교 행사인 ‘카운트 잇 라이트(Count it Right)’가 이집트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각)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70마일 떨어진 곳에서 열렸으며, 핍박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 26,000명이 모였다. 이번 행사를 위한 티켓은 약 2주 전에 매진됐다. 약 1,000명의 스태프, 전

도자, 자원봉사자, 기독교 예술가 등도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버스, 무대, 갤러리 등을 방문했다.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및 설교가 진행됐다. 낮 행사에는 익스트림 모터사이클 쇼가 있었고, 갤러리, 연극, 영화 상영,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다.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현재 이집트는 전 세계 50대 박해국가 리스트에서 2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집트는 헌법 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독재 정권 붕괴 이후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 권리는 사문화 됐다.

혁명 이후 핍박이 심해지면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집트를 벗

어났으며, 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와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 간의 긴장은 지난 7월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극에 달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ICC(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의 중동 지역 책임자 토드 다니엘(Todd Daniel)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는 이집트 당국이 교회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격에 취약하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면책을 받기 때문에, 박해가 더욱 버젓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집트 전역에는 어린 이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응답하는 곳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픈도어 측에 따르면, 이러한 박해의 와중에도 복음적인 교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집트 내 기독교 인구는 1000~12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집트의 소수 기독교 공동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오픈도어선교회 언론 담당자 제리 다이크스트라(Jerry Dykstra)는 “성령께서 이집트 내에서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위협이 있고, 특별히 무슬림형제단 같은 극단주의자의 핍박이 거세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핍박의 때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10년 동안 보아왔다”고 증거했다.

강혜진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활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키테이트**

\$100 up

앞서가는 것들이 모여 있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 인도 기독교 인구 7천만으로 급증

### 세계 8위 발돋움

### 수많은 미전도 그룹과 교회 박해는 여전한 과제

기독교 선교 활동이 세계 2위의 인구대국 인도에서 기독교인 수의 현저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는 과거에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카스트 제도의 하위층이었던 데 반해 중간 계층이나 고위 계층 사이에서도 기독교인 수가 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수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조지아에 본부를 둔 국제선교단체 미션소사이어티(Mission Society)의 닉 맥클레인 회장은 “현재 인도에는 7천1백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며, 이는 인도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기독교 국가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2001년 인도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 인구는 2천4백만여 명에 불과했다. 미션소사이어티는 그 수가 지난 12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맥클레인 회장은 이 같은 기독교의 성장은 지속적인 선교 활동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괄목할 만한 점은 “이제는 선교적 접근이 전통적보다 더 기독교에 열린 태도를 보여 왔던 카스트 제도 하위 계층을 넘어서 새로운 계층들을 향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인도의 기독교는 아직도 많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맥클레인 회장은 “(비록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도에서는 각기 다른 456개의 언어를 쓰는 2,611개의 미전도 그룹이 존재하고 있다”며, “인도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88%가 한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나라,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전은 증가하는 기독교 인구만큼 동시에 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다.

인도 인류학자인 프라부 심 박사는 “기독교는 여전히 인도에서 소수종교이기에 기독교인의 증가는 종교적인 적대감에 부딪히고 있고 이는 박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박사에 따르면 현재 인도 교회는 그 성장에 힘입어 이미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들은 서구 교회의 재정적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예를 들어 인도 남부의 한 선교단체는 2천여 명의 사역자들이 있고 매년 9백만 달러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선교자금은 인도인들에게서 기부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박사는 “세계선교 활성화와 남반구 기독교 증가에 대한 인도 교회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세계선교는 여전히 서구 교회들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구 교회가 세계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이자 친구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인도 교회가 세계선교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동역자로 인식되고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드러냈다.

손현정 기자

### 빌리 그래함의 영향력, 새로운 세대에도 여전히



조니 무어 교수

빌리 그래함의 영향력은 20세기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까, 아니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

현재 20-30대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자리에 있는 밀레니엄 세대는 빌리 그래함의 메시지를 듣고 자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다. 이들은 그래함 목사의 복음집회에 자리했던 2억여 명 중 한 명도 아니고, 그를 단지 '역사적 인물' 정도로만 기억할 뿐이다.

그러나 올해 30세로 미국의 대표적인 밀레니엄 세대 기독교 리더인 조니 무어 교수(리버티대학교 종교학)는 그래함 목사의 영향력이 자신의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그래함 목사가 전해 온 메시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세대가 자신의 세대임을 믿게 된 사람 중 한 명이다.

무어 교수는 그래함 목사의 95번째 생일을 맞아 최근 글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전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밀레니엄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그래함 목사를 그저 지난 시대의 영웅으로만 생각했음을 고백했다. 그러나 그래함 목사가 지난 7일 생일에 전한 마지막 설교 '십자가(The Cross)'는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함 목사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을 떠난 미국의 현실을 되짚고 미래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역설했다. 무어 교수는 "밀레니엄 세대는 9.11 테러와 태풍 카트리나, 샌디의 세대,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의 세대이자 늘 전쟁 중인 미국을 보고 자랐고 경제적 위기와 가정의 위기 속에 부모님들이 이혼하는 것을 보

고 자란 세대이며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고독과 우울을 호소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세대"라며, "그 어떤 세대보다도 절실히 희망의 메시지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래함 목사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며 그의 메시지가 지나간 시대의 노스텔지어가 아닌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며, "나는 왜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를 통해 희망을 찾았는지 알 수 있었고 동시에 나 역시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주어져 있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설교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전했다. 감사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래함 목사의 마지막 설교는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창과 록 뮤지션 등과 함께 협력하는 등 새로운 노력으로 화제를 모았다. 무어 교수 역시 "나는 그래함 목사가 젊은 리더들의 개인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데 놀랐다"며, "그래함 목사는 이 날 설교에서 자신의 메시지에 21세기의 옷을 입혀 정확히 새로운 세대를 향해 희망을 이야기했다"고 평가했다.

무어 교수는 이 기고에서 앞으로 리버티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래함 목사의 메시지를 자신의 세대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 이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세대는 온라인으로 그의 메시지를 들을 것이고 SNS로 그것을 나눌 것이다. 그 어떤 스타디움도 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그를 찾을 젊은 이들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할 것이다"며, "그래함 목사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 美 선교단체, 작년 성경 5만권 풍선으로 北에 보내

미국의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지난해 대형 풍선을 통해 성경 5만권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기독교 선교단체 '서울 유에스에이'는 11일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성경을 보내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서울 유에스에이'가 지난 2006년부터 한국의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고 있으며 풍선에 성경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간증을 담은 소책자와 단파 라디오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유에스에이'의 대표인 에릭 폴리 목사는 "풍선에는 낙하할 지점을 지정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GPS)와 시간을 맞추는 타이머가 장착돼 있으며, 지난해 북한으로 보

낸 성경은 5만 권에 이른다"고 밝혔다.

폴리 목사는 또 "북한에 10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있고 이 가운데 3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추산했다. 폴리 목사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박해를 받고, 성경을 갖는 것은 3대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이지만 성경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은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또 다른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 유에스에이'의 경우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최대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유에스에이는 서울에서 국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2개의 선교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국가 분열 주도"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m)'이 무슬림과 기독교인 국민 간의 분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운동가가 규탄했다.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현재 유엔 소수 인권 보호 프로그램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하우아 야쿠부(Hawua Yakubu)는 최근 중동기독교 뉴스(Mideast Christian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보코하람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를 촉구했다.

야쿠부에 의하면 이 단체는 '탈레반'이란 이름으로 1990년대 그 활동을 시작했지만 곧 아프리카어인 '보코하람'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보코하람은 '서구적 가치'를 의미하는 '보코'와 '금지를 뜻하는 '하람'이 결합된 이름이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 보코하람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리아 국가 건설을 목표로 반정부·반서구·반기독교 테러를 벌여 왔다.

야쿠부는 또한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를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인 북부와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남부로 분열시키기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코하람은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 박해의 배후에 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공격은 2009년 이래로 심화되어 왔다"며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야쿠부는 보코하람이 기독교인은 물론이며 온건주의 무슬림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독교인 뿐 아니라 많은 나이지리아 무슬림들은 사리아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쿠부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코하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이 단체의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손현정 기자

### 아베디니 목사, 인권 탄압 극심한 감옥으로 이송돼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기독교 사역을 했다는 이유로 복역 중인 사에드 아베디니(Saeed Abedini) 목사에 대한 인권 탄압이 최근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과정의센터(ACLU)가 14일 밝혔다.

이란계 미국인인 아베디니 목사는 이란에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해 왔으나 1년여 전 이란 법정에서 국가 보안 위협 혐의로 8년형을 선고 받고 노동수용소인 에빈(Evin)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최근 라자이 샤희르(Rajai Shahr) 감옥으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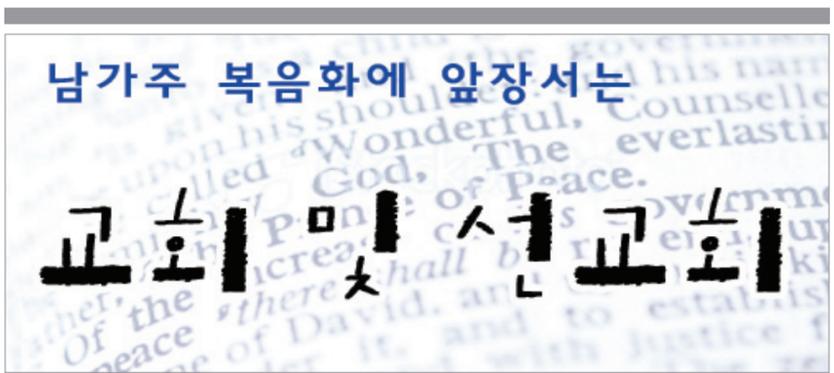
라자이 샤희르 감옥은 넘쳐나는 재소자 수

로 인해 위생과 환경 수준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던 시컬로우 ACLU 대표는 "이러한 환경은 예민 감옥에서 가해진 고문과 구타로 인해 쇠약해진 아베디니 목사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베디니 목사는 현재 다섯 명의 폭력 전과자들과 좁은 방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으며, 예민 감옥에서 제공 받던 의약품마저도 공급이 끊긴 상황이다.

손현정 기자



**LA 지역**

|  |  |
|--|--|
| <p><b>한천영</b>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br/>2부예배 오전 11:00<br/>Youth예배 오전 11:00</p> <p>어린이부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br/>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b>갈릴리선교회</b></p> <p>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br/>T. (323) 735-6412 / gmcchurhc.com</p>        | <p><b>강진웅</b>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10:30<br/>3부예배 오후 12:45<br/>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br/>오전 6:00 (토)<br/>유초등부 오후 12:30<br/>중고등부 오후 12:45</p> <p><b>갈보리민음교회</b></p> <p>백천 세계 비전!</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br/>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
| <p>주일 오후 4시<br/>새벽 오전 5:30 (말-토)<br/>저녁 오후 7:30 (화,목,금)</p> <p><b>엘리아 김</b> 담임목사</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p> <p>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203 LA 90006<br/>T. (213) 272-6031</p>   | <p><b>박헌성</b>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9:30<br/>3부예배 오전 11:00<br/>4부예배 오후 12:30</p> <p>성인 EM예배 오후 2:00<br/>한어청년예배 오후 2:00<br/>찬양예배 오후 3:30<br/>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나성열린문교회</b></p> <p>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1925 Wilshire Blvd, LA / T. (213) 383-2600 (213) 413-1600<br/>임시예배처: 3119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p> |
| <p>1부예배 오전 7:45<br/>2부예배 오전 9:30<br/>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전 11:30<br/>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br/>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진유철</b> 담임목사</p> <p><b>나성순복음교회</b></p> <p>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br/>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10:00<br/>3부예배 오전 11:45</p> <p>영어예배 1부 오전 9:00<br/>2부 오전 10:00<br/>금요일예배 저녁 8:00</p> <p><b>나성한인교회</b></p> <p>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br/>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
|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11:00<br/>유초등부 오전 11:00<br/>중고등부 오전 10:45</p> <p>대학부 오후 1:00<br/>성경공부 저녁 7:30(목)<br/>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br/>6:00(토)</p> <p><b>김광삼</b> 담임목사</p> <p><b>나성제일교회</b></p> <p>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찬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br/>T. (213) 388-7101</p>     |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11:00<br/>성경공부 오후 7:30 (화)</p> <p>금요일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br/>2부 오전 6:30 (말-금)<br/>오전 10:30 (수)<br/>오전 6:30 (토)</p> <p><b>정우성</b> 담임목사</p> <p><b>남가주광염교회</b></p> <p>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br/>T. (213) 598-0191</p>                                       |
|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후 12:00<br/>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후 1:00<br/>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p> <p><b>김요섭</b> 담임목사</p> <p><b>남가주리더교회</b></p> <p>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br/>T. (213) 215-8523 / scrdm.org</p>                                    |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11:00<br/>EM예배 오전 10:00</p> <p>주일예배 오전 11:00<br/>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br/>금요일예배 오후 8:00<br/>청년부- 주일 오후 1:30<br/>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p> <p><b>서건오</b> 담임목사</p> <p><b>새로남교회</b></p> <p>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p> <p>3407 W. 6th St 103 LA, CA 90020<br/>T. (213) 384-0305 / www.gwclia.net</p>                            |
| <p><b>김성광</b> 담임목사</p> <p>주일예배 오후 2:00<br/>주일학교 오후 2: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성재복음선교회</b></p> <p>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p>   | <p><b>최운형</b> 담임목사</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EM예배 오전 9: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br/>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br/>토 오전 6:00</p> <p><b>세계선교회</b></p> <p>하나님의교회, 사림들의교회, 세상속의교회</p> <p>927 S Menlo Ave. LA, CA 90006<br/>T. (213) 388-1927, 388-2105</p>  |
| <p><b>박승부</b> 장로</p> <p>1기,2기,3기,4기 수료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br/>-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br/>-약품이나기구없이 손안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p> <p><b>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b></p> <p>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br/>OC부활교회 (아리랑마켓 뒤) T.(213) 381-7273 / T.(213) 605-2928</p>  | <p>1부예배 오전 09:00<br/>2부예배 오전 11:00<br/>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br/>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p> <p><b>조인수</b> 담임목사</p> <p><b>씨너지이드교회</b></p> <p>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br/>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
| <p><b>이경애</b> 목사, <b>이은우</b> 목사</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넌전 전반)<br/>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b>요한 선교회</b></p> <p>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br/>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11:00<br/>3부예배 오후 1:30</p> <p>영어예배 오전 10:00<br/>수요일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b>김세환</b> 담임목사</p> <p><b>엘에이연합감리교회</b></p> <p>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br/>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
|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10:00<br/>3부예배 오전 11:30</p> <p><b>김혜성</b> 담임목사</p> <p><b>영생장로교회</b></p> <p>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br/>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 <p><b>류종길</b>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br/>2부예배 오전 11:00</p> <p>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br/>오전 6:00 (토)</p> <p><b>임마누엘선교회</b></p> <p>초대교회의가정모임, 성경학교노년회, 만민제사장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br/>T. (323) 766-9922</p>  |
|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10:30<br/>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p> <p>3부예배 오후 1:00<br/>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신승훈</b> 담임목사</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br/>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 <p><b>대표 김갑선</b> 목사</p> <p>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br/>전문의 213) 505-7067</p> <p><b>지구촌 농업선교회</b></p> <p>3000 W. 6th St. #309 LA CA 90020<br/>T. (213) 505-7067</p>   |
| <p>1부예배 오전 9:00<br/>2부예배 오전 11:00<br/>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br/>오전 6:30 (토)</p> <p><b>이명수</b> 담임목사</p> <p><b>청운교회</b></p> <p>선교에 흠뻑, 소.친.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간의 흠뻑</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br/>T. (323) 667-9920</p>                 | <p><b>민중기</b>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9:30</p> <p>3부예배 오전 11:30<br/>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b>충현선교회</b></p> <p>콜리서(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선(antoring)</p> <p>5005 Eder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br/>T. (818) 549-9191 / choonghyun.org</p>  |
|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br/>새벽예배 오전 5:30(말-토)<br/>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강지원</b> 담임목사</p> <p><b>한우리장로교회</b></p> <p>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화해가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br/>T. (323) 702-6709</p>            | <p>1부예배 오전 8:00<br/>2부예배 오전 11:00<br/>평일미예배 오후 2:22</p> <p>EM예배 오후 2:00<br/>새벽예배 오전 5:20(말-금)<br/>오전 6:20(토)</p> <p><b>김기섭</b> 담임목사</p> <p><b>LA사랑의교회</b></p> <p>평신도를개우고 이만21세대를육양하며, 영가정교회를지향하며, 선교영광을추진하는교회</p> <p>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br/>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ung.com</p>                   |

### 워싱턴교역자회 신임 임원진 구성



회장 문정주 목사, 부회장 예경해 목사, 총무 안태선 목사, 서기 이태봉 목사, 회계 최우성 목사

워싱턴교역자회(회장 문정주 목사)가 11월 16일(토) 커뮤니티교회에서 신임 임원진을 구성하고, 다음 회기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싱턴교역자회는 회장 문정주 목사(커뮤니티교회), 부회장 예경해 목사(평안교회)에 이어 총무 안태선 목사(주님의마음교회), 서기 이태봉 목사(예드림교회), 회계 최우성 목사(버지니아베델교회)로 임원진을 구성했다.

연중 행사로는 워싱턴지역여성교회연합회(회장 김한희)가 식사를 대접하는 송년예배와 워싱턴연합장로교회(담임 김해길 목사)가 식사를 대접하는 원로목사 부부 초청예배가 있다. 올해는 보다 예배에 초점을 맞춰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계획이다. 송년예배는 12월 16일쯤 커뮤니티교회에서 드릴 예정이다.

특히, 2014년 1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정기모임은 주중에 일을 해야 하는 교역자들을 고려해 토요일 점심에 갖기로 했으며, 일단 커뮤니티교회에서 모임을 시작하고

차후에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번갈아가며 모임을 갖기로 했다. 1년 회비는 많은 교역자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50달러로 낮추기로 했다.

회장 문정주 목사는 "앞으로 교역자회는 행사 위주가 아니라 부담없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진정으로 교역자들에게 필요한 일들, 진정으로 교역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목사는 "이 지역에 많은 교역자들이 있지만 서로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해, 힘들고 외로울 때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기 모임을 통해 개인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과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나아가 성도들과 일반인들에게도 신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워싱턴교역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담임 교역자 뿐만 아니라 부교역자와 2세 교역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703-220-9022

jcmoon@cox.com(회장 문정주 목사)

조요한 기자

###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권일두 목사 취임



권일두 목사(왼쪽)가 지방회장인 이성자 목사(오른쪽) 앞에서 취임 서약을 하고 있다.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권일두 목사 취임예배가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총회장 강태욱 목사) 동중부 지방회(회장 이성자 목사) 주관으로 11월 13일(수) 저녁 7시 30분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취임예배는 장보식 목사(지방회 총무)의 사회로, 한훈 목사(지방회 부회장)의 대표기도, 강태욱 목사(총회장)의 설교, 이성자 목사(지방회장)의 서약 및 공포, 취임패 증정, 이영훈 목사(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이사장)의 영상 축사, 박엘리사 목사(북미총회 전 헌법위원장)와 이정환 목사(북미총회 총무)의 권면, 권일두 목사의 취임사, 특별 찬양, 김재철 장로의 광고, 이근철 목사(지방회 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강태욱 목사는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훈련을 통해 깨어진 사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며,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가 권일두 목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하길 바라며, 이 지역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젖고 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길" 축원했다.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를 12년간 섬긴 바 있는 이성자 목사는 "권일두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에게 '병기 매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면서, "병기 매는 자는 누군가의 뒤에서 무기를 들고 그를 보호하는 자다. 그의 등받이가 되어 날아오는 총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며, 다가오는 적을 방어하며 보호하는 자다. 다윗의 정치 여정은 사울 왕의 병기 매는 자로 시작됐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누군가의 등받이가 되어, 그의 병기 매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내가 섬기는 대상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병기를 메며 생명을 다해 그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갑절의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축사했다.

권일두 목사는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가 이제 정금같이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회자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것"을 다짐했다.

조요한 기자

### 박선근 회장, 필리핀 위해 유니세프에 1만불 쾌척



박선근 회장이 유니세프에 성금 1만불을 전달하고 있다.

에틀랜드 전 한인회장이자 좋은이웃재단 이사장인 박선근 회장이 유니세프에 1만불을 쾌척했다. 이날 성금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김앤더슨 기자

## 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해성 담임 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 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 오전 8:00  
금요일 오후 8:00

**고태형 담임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 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 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베리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문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 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창신년부 오전 11:00  
유년 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 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양성필 담임 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 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 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홍장로교회**  
망할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 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 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 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 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30(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체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체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체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체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체움)

**최희 담임 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오후 12:00(번안)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 니카라과 청년들 비전트립으로 '소망의 씨앗' 심어

### 예수소망교회 초청으로 美 방문한 니카라과예수소망교회 이창희, 김향자 선교사와 세 명의 청년들



올해로 세 번째 예수소망교회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니카라과예수소망교회 이창희, 김향자 선교사와 세 명의 형제들. (왼쪽부터 김향자 선교사, 크리스토팔 누린다 전도사, 엘리야셀 오로스코 형제, 루이스 산파나 형제, 이창희 선교사)

예수소망교회(담임 박대웅 목사)에서 올해도 어김 없이 니카라과예수소망교회(이창희, 김향자 선교사)의 중추적인 청년 리더들을 초청했다. 약 2주 동안 일정으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예배 및 시스템을 배우고, 예수소망교회와는 오는 토요일(16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가을음악회에 함께 하게 된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비자를 받아 처음 미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팔 누린다(27) 청년부 전도사를 필두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된 엘리야셀 오로스코(20) 찬양리더 형제, 그리고 교회 음향을 맡고 있는 루이스 산파나(18) 형제, 세 명을 지난 수요일(13일) 만났다.

김향자 선교사는 미국 방문을 통해 말과 글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배워, 지난 3년 동안 교회 청년부가 많이 건강해졌다고 소개하며, 엘리야셀 형제를 예로 들었다.

“엘리야셀 형제는 지난 해 처음 방문해서 교회의 질서 있는 예배 모습과 청년들의 신앙과 섬김, 찬양의 이모저모를 보며 ‘놀랍다’ ‘은혜롭다’고 이야기 했는데 배운 것을 하나하나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 미국을 방문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막연히 교회만 오가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더욱 불드리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단기선교팀으로 매년 오는 예수소망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크리스토팔 누린다 청년부 전도사에게는 특히 이번 방문이 갖는 의미가 크다. 그는 처음 방문 기회가 있을 때부터 오고자 했지만, 두 번의 비자 거절 후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했다.

누린다 전도사는 “처음에 비자가 거절됐을 때는 ‘너무 촉박한 시간에 준비를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지만 두 번째 거절됐을 때는 아주 실망이 컸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조언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됐고, 주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다리게 됐다.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나를 세우셨으니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쉽지 않았던 과정을 나눴다.

미국 방문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을 물었다. 누린다 전도사는 지체 없이 “영적, 육적으로 여기 청년부 목회자가 어떻게 청년들과 사역하는지, 어떻게 청년들을 관리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모든 걸 배우고 싶다”고 강한 열정을 나타냈다. 니카라과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는 비전도 덧붙였다.

엘리야셀 형제는 “처음에 막연히 왔다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교회의 질서 있는 예

배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렇게 보고 배운 것을 일년간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알고 싶다. 지난해 경험이 외형적인 부분이 컸다면, 올해는 내면적인 부분들,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제자로서 다시 한번 점검 받고 싶다”고 겸손히 밝혔다.

김향자 선교사는 엘리야셀 형제는 지난해 예수소망교회 모습과 올해 데코레이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챌 정도로 눈썰미가 좋다고 칭찬하면서 “교회 강대상 앞에 현화된 꽃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현화되고 친교도 준비하고 또한 예배 순서도 정해져서 미리 준비한다고 설명해 주니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보자고 제안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했다”고 칭찬했다.

니카라과 현지인 교회는 대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 중에도 누군가 감동을 받으면 나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특정한 예배 형식이나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종 말이 없던 루이스 형제는 어떤 걸 배우고 싶어서 왔냐는 질문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음향 시스템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영적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섬기는지도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학생인 루이스 형제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면서 음향과 기계를 다루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니카라과예수소망교회에서 새로 설치한 음향기기를 독학으로 배우고 만지면서 예배 2-3시간 전부터 나와 음향을 체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열정적인 청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창희, 김향자 선교사는 “예수소망교회에서 단기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벌써 3년째 초청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니카라과 청년들이 주 안에서 꿈꿀 수 있는 비전을 심어 주셔서 감사하다. 처음에 미국에 방문할 때는 막막했던 비전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바뀌고, 청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니카라과 교회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청년들을 보냈고, 비전트립을 통해 많이 배우고 돌아와 교회를 더욱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어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야셀 형제가 자기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끼어 들었다. 그는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좋은 땅에 심어 주셔서 감사하다. 주 안에서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 좋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나눠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앤더슨 기자

## 신천지 뉴욕엔 400명, 애틀랜타는...??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류도형 목사)와 대애틀랜타한인목사회(회장 최중찬 목사)가 공동 주최한 이단대책세미나가 12일(화) 시온연합감리교회(담임 송희섭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뿐 아니라 LA와 뉴욕, 애틀랜타 교계까지 손을 뻗고 있는 신천지를 주제로 열렸으며 감사로는 미동부이단대책위원장 이종명 목사가 나섰다.

이날 이목사는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달리 진리를 왜곡하는 것 이외에도 교회를 장악하고 무너뜨린다. 이들은 주로 건강한 교회보다는 분란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 혼란을 부추기고 신천지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교회를 장악해 간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만나야만 구원을 받으며 자신들의 단체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또 이만희 식 비유를 하며 계시록을 곡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목사는 “뉴욕에도 문서상 2백여 명 있는데 실제로는 4백여 명은 될 것이다. 애틀랜타에도 반드시 있다. 신천지는 ‘배도와 멸망’, ‘계시와 실상’, ‘추수꾼’ 등의 용어를 쓰며 사도신경을 거부한다. 또 ‘잘 아는 선교사가 잠시 왔는데 성경해석이 탁월하다, 같이 성경공부를 해보자며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로 이끈다’고 신천지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김앤더슨 기자

##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2:45 수요일양예배 오후 7: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아래침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영아침례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714) 680-9556 / F.(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일도 재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45 2부 영아예배 오후 12:45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중, 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성경공부 (화) 오후 8시 30분 주일학교 오전 11:00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장려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섬김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562) 690-9800 / F.(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오후 12:3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성령강림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한중수 담임목사**

**앨버틴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949) 857-9425 / F.(949) 857-9242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최상준 담임목사**

**앨버틴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2부 오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김삼도 목사**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949) 514-4346 F.(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2부 오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년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아래침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일 오전 5:30 (토)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714) 446-6200 / F.(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월요일 성학교 오후 7:30 화요일 성학교 오후 7:30 화요일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 성령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목회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강을 건너 세게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연말연시 감사대세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감사 특별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 \$100 구입시 **HQ미네랄 소금 1파운드(시판가 \$40) 선물증정**  
 구연산 \$200 구입시 **HQ미네랄 소금 3파운드(시판가 \$120) 선물증정**  
 Sea of Cortez 소금은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소금이며 천연 미네랄 함량이 전체 무게의 17%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암염보다 10배 이상, 기타 소금보다 5-20배이상 함유된 세계 최고의 무공해 천연 바다 염전 소금입니다.

**HQ구연산은 시중에는 없으므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타사 100% 구연산 캡슐제품은 인체 장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므로 FDA 위법 제조로서 고발 대상입니다**

##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   |  |  |
|---|--|--|
| <p>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br/>or 오리지널 8병</p> <p>프로모션 A</p> <p>\$280 <b>\$100</b> No Tax</p> | <p>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p> <p>프로모션 B</p> <p>\$270 <b>\$100</b> No Tax</p> | <p>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p> <p>프로모션 C</p> <p>\$280 <b>\$100</b> No Tax</p> |
|---|--|--|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있었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뭇 맥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은.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쳐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 우울증 앓던 목회자 자살에 교계 충격

## 기독교인 네티즌들 “교회 우울증 문제 재고할 때”



설교 중인 테디 파커 2세 목사

미국 교계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목회자의 자살에 충격에 빠졌다. 조지아 주의 빙 마운트 자이언 침례교회의 테디 파커 2세(Teddy Parker Jr.) 목사는 지난 10일 권총 자살로 42세의 생을 마감했다.

파커 목사는 주일예배를 앞두고 아내와 두 명의 자녀들을 먼저 교회로 보낸 뒤 자택 밖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우울증으로 치료 중

에 있었으며, 평소 자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지 않다”고 지인들에게 말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커 목사는 이 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신을 기다리던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가족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모두 거부한 상태다. 이 교회의 교인이

자 파커 목사의 지인인 러셀 로울랜드는 “파커 목사는 교인들을 아끼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상한 사람이었다”며 “그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를 찾으러 갔다. 그는 (자살을) 반대하는 설교를 전해 왔고 교인들은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놀랐다”고 밝혔다.

현재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파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로울랜드는 전했다. 그는 “주님께서 이상함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미 교계는 올해 초에도 유명 목회자인 릭 워렌 목사의 막내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면서 깊은 충격과 슬픔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에는 목회자 가족이 아닌 목회자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것으로, 미국 기독교인 네티즌들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안의 우울증 문제에 대해 재고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할 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현정 기자

## 목회자들의 우울감 치유 위한 노력 촉구

최근 미국의 한 목회자가 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 교계 원로가 우울감으로 고통 받는 젊은 목회자들에 대한 돌봄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커 목사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 교계에서는 목회자들의 우울증 문제를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미 교계 원로이자 복음주의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인 리처드 랜드 박사(서던복음주의신학교 총장, 前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장) 역시 15일 “목회자들의 우울증은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에 대해 우리 목회자들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며, 특히 “의식적으로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그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목회는 매우 고독한 일이고 내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늘 조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회자

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 진짜 기분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나는 51년을 사역해 왔고 이는 고독한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자기 자신을 위한 목회자를 둘 수 없다. 바로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이다”고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목회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경쟁심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관계 형성에 장애물이 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만들기 힘든 것은 목회자들이 서로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며, “이는 우리 사역의 슬픈 진실이다. 나는 모든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매우 은혜롭지만 대부분이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 경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손현정 기자

# 릭 워렌, “美 부흥 위한 첫걸음은 개인의 영적 갱신”

## 부흥에 이르는 5단계의 갱신에 대한 견해 소개



릭 워렌 목사가 지난 6일 시애틀 마스힐교회(Mars Hill Church)에서 열린 리서전스 컨퍼런스(Resurgence Conference)에서 담임목사인 마크 드리스콜(Mark Driscoll) 목사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부흥을 위해 5가지의 갱신이 필요하다 역설했다.

새들백교회 리크 워렌 목사가 미국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부흥에 이르기 위한 5단계의 갱신으로 ▲개인의 갱신 ▲교회의 갱신 ▲선교적 갱신·목적의 갱신 ▲구조적 갱신 ▲문화적 갱신을 논했다.

워렌 목사는 “미국에서 신앙이 다시금 힘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부흥이, 개혁이, 갱신이 필요하다. 교회 역사에서 이는 항상 어떠한 단계

를 통해 이뤄졌고 그 첫번째 단계는 개인적 갱신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개인적 갱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적 부흥은 교회의 갱신을 가져온다. 그는 “바로 이 때가 교회가 온기를 띠기 시작하는 때다. 이러한 갱신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예배 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이러한 교회의 갱신은 주로 매년 실시되는 부흥회 행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워렌 목사는 덧붙였다.

개인교와 교회의 갱신은 선교적 갱신 또는 목적의 갱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구조적 갱신으로 발전한다. 워렌 목사는 “목적의 갱신이 일어나면 교회는 자라기 시작하고 구조적 갱신에 이르게 된다. 하나의 공동체가 성장하면 그 구조를 계속해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최종적인 단계는 문화적 갱신이다. 그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마침내 문화적 갱신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국 전체의 풍토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고 총 5단계의 갱신이 어떻게 미국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했다.

워렌 목사는 지난 6일 시애틀 마스힐교회(Mars Hill Church)에서 열린 리서전스 컨퍼런스(Resurgence Conference)에서 미국의 부흥에 대한 강연을 전한 바 있다. 손현정 기자

## 기독교 인권단체

### 인도의 반개종법 규탄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인권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지난 11일 런던에 있는 인도 고등법원 사무소(the India High Commission in London) 앞에서 인도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며 철야기도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의 지지자들은 인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기록을 읽어가면서, 종교적 자유를 위해 기도했다. 또 힌두교 무장군인들의 폭력과 반(反)개종법의 위험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인도 기독교인들을 위해 28만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교회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고,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한 이들을 처벌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인도의 7개 주에서 이미 반개종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종교로 개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당국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개종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역 3년에 처해진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법들은 인도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정

부가 인도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의 폴 로빈슨(Paul Robinson) 대표는 단체의 후원자인 마이클 나지르-알리(Michael Nazir-Ali)와 함께 인도 고등법원 사무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 정부를 향해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떨거나 거짓되게 고소당하거나 투옥되는 일 없이 자신의 신앙을 갖고 이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폭력에 노출된 인도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인도에서 4번째로 큰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에서는 지난 6개월 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무려 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에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번의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로빈슨 대표는 “우리는 인도 정부가 인도 시민에 대한 이같은 공격을 중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과, 이들에게 정의를 보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죽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질의 인슈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 공급가 \$76  
\* 한국에서는 \$1450에 판매중



**재미과학자승문기 박사는**  
UCLA의과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체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슈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슈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621 S. Virgil st. Suit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 개척 후, 50명, 100명, 200명, 300명 될 때 고비가 온다

예장 합동총회가 18일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2014년 새해를 준비하며 목회 계획과 노후를 공개하는 '총회 목회자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척교회 준비와 교회 성장의 고비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소 목사는 교인 50명 이하 교회가 유념해야 할 점으로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교인들이 대형교회를 찾는 것과 달리, 종교적 공명심과 자리를 선호하는 교인들이 오히려 모여들 수 있고 ▲이들은 담임목사에 대한 독점욕이 매우 강하며 ▲가족적인 화기에 애한 분위기를 좋아하며 ▲대교회에서 상처받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으며 ▲자칫 교계 중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교회를 신앙적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어려운 자를 도와준다고 여길 수 있고 ▲목회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력한 평신도 한 두 사람으로 인해 성장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 목사는 "교인 50명 이상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와 성육신적 섬김'이 필요하다"면서 이 때 목회자는 무엇보다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의 동기를 전해야 하며 ▲우선순위는 하나

님, 영혼, 교회 순으로 세워야 하며 ▲기도회를 많이 열고, 심방을 하더라도 위로와 소망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며 ▲설교는 신앙의 본질을 터치하고 포용적이고 영혼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잘 전해야 하며 ▲목회 비전과 철학이 같은 부교역자와 철저히 호흡을 맞추고 일치점을 이뤄야 하며 ▲목회자와 성도의 꿈이 반드시 같게 해야 하며 ▲설교나 심방, 기도회와 주보의 칼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 목사는 "개척멤버 하나 없이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할 때, 빈 의자를 붙잡고 '이 의자에 사람을 앉혀 주신다면 사랑을 전하겠다'고 기도했다.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기도하면서 집과 상가를 방문했다. 상가 사장님들의 손을 붙잡고 '장사가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렸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다"며 "개척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성육신적 사랑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보듬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00명 이상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영성과 수행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이 시기에는 전도와 기도 면에서 조직적인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전도특공



소강석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

대를 조직해서 전도 전문가에 gaps도 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며 ▲중보기도단을 결성해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하고, 성도들을 기도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철야예배나 특별새벽기도회에 집중해야 하며 ▲직분자를 세우거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하며 ▲어느 정도의 행정 원칙, 교회 내규·제도를 세워야 하며 ▲교인들의 시선과 관심을 미래 비전과 목표에 맞추고, 서서히 건물의 이동과 예배당 확장을 놓고 기도해야 하며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담임목사와 손발이 맞는 부교역자를 미리 확충해야 하며 ▲부교역자의

부적당한 처신이나 목회윤리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부교역자와의 의사소통과 비전 공유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조직과 행정을 잘 운영해야 하는데, 조직은 필수 조직(공동조직-제직회, 공동의회 등)과 선택 조직(사조직-성경공부, 구역장 모임 등)으로 나누어, 먼저 선택조직을 융통성 있게 선용한 다음 필수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200명 단계의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교회만의 예배와 설교를 목숨 걸고 세팅해야 하며 ▲이 때에는 담임목사의 사무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는 외부사역보다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고

집중해야 하며 ▲조직자나 기관장 관리를 잘 해야 하며 ▲목회자의 리더십 패턴을 변화시켜야 하며 ▲'교회 안의 교회'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구역, 셀, 기관이 유기적 공동체가 되게 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되게 해야 하며 ▲비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조직, 행정 관리 시스템은 과감하게 없애야 하며 ▲자꾸 교회의 변화를 보여 주며 항상 교인으로 하여금 꿈과 비전에 불타도록 해야 하며 ▲기어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성도를 처음에는 눈물로 잡아보지만 때로는 좋게 보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300명 이상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 자신의 그릇의 용량을 키우고 300명 돌파를 위해 모든 집중과 헌신을 다해야 하며 ▲선진교회를 탐방하거나 이미 성공한 강사를 초청하여 사례를 들어야 하며 ▲모든 교인이 함께 교회 성장을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 힘을 집중하고 헌신해야 하며 ▲담임목사와 같은 목회철학을 갖고 옆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부교역자가 있어야 하며 ▲이 때 목회자는 결사적 헌신의 스토리가 있어야 하며 ▲축제적인 대예배, 중간 그룹의 회중이나 기관 모임, 셀이나 소그룹 모임이 이상적인 균형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교회 이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태진 기자

## “스마트 미디어 과다 노출, 예배 생활에도 악영향”

### 2013 건강교회 포럼 ‘스마트미디어 중독 및 치료’

크리스천라이프센터 주최 2013 건강교회 포럼 '스마트미디어 중독 및 치료'가 18일 오후 서울 논현동 서울 영동교회(담임 정현구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병오 원장(백석대 상담대학원)이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기독교적 치유', 전종천 대표(e미디어워치)가 '스마트미디어 중독 현황 및 실태'를 각각 발표했다. 이후 김형수 목사(맑은샘광천교회)는 '폰 안테(스마트폰 안식 데이)! 캠페인 소개 및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김병오 원장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스마트 미디어에 노출돼 있는지 생각해 보라"며 "비단 일상생활 뿐 아니라 예배 생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고,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은 단순히 중독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통제 감소를 통해 전반적인 중독을 심화시킨다"며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중독 심화는 유년기와 청소년

기에서 특정 행동방식들이 연습·학습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중독 발전을 저지할 중요한 보호요소인 자기 통제 상실로 상황은 더욱 끔찍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유년기의 미디어 사용은 교육 기회만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방해하는데, 이 둘은 자기 통제 부족의 신호로 중독에 대한 위험요소"라며 "우리 같은 성인은 미디어 이주민이지만, 유아들은 미디어 원주민으로 인생의 시작부터 미디어와 함께하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오 원장은 이렇듯 심각한 '중독'의 해결 방안에 대해,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종교적 회심 뿐"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미디어 중독의 일반적 치유 방안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자존감 높이기 △자기효능감 높이기 △가족적-사회적 지지 높이기 △인지-행동적 치료기법 활용 △스포츠 혹은 예술



김병오 원장이 강의하고 있다.

분야 활동에 적극 참여 △집단치료를 통한 자존감 높이기 등이 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중독의 '기독교적 의미'로 △죄로서의 중독 △타락한 욕망로서의 중독 △의지의 굴레로서의 중독 △실존적 불안 반응으로서의 중독 △실존적 공허감으로서의 중독 등을 열거한 뒤, 중독을 치유하는 다섯 단계의 영성으로 ①절망의 밑바닥을 치는 경험

②검손 ③자기 포기 혹은 무조건 항복 ④회심 경험 ⑤은혜의 치유 능력 등을 꼽았다.

전종천 대표는 스마트폰 중독 현황 및 실태에 대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3500만명, 청소년 이용자는 4백만명에 넘어섰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마트폰 보급률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태블릿 인터넷 사용시간을 보이고 있고, 스마트폰 중독률도 10대 18.4%, 20대 13.6%, 30대 8.1%로 10대들의 중독률은 성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전 대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학교폭력과 왕따 문화에 있어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카카오톡과 트위터를 이용한 '왕따놀이'는 특정 친구를 지목하고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으로, 이같은 '사이버 왕따'는 학교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익명의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와 위험성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교회 내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대해 그는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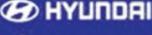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국,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WIN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 추수감사절 대세이클



\$159

2013 New Sonata GLS

MSRP \$22,375  
Residual \$13,648.75  
12K miles per year+ tax/mo  
On 3 years closed end lease Drive-Off  
\$1000+lic&doc on O.A.C.



**Stone Kang**  
888.721.9812  
3462 N Peck Rd, El Monte, CA 91731

이 가격에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No purchase necessary. Must be 18 or over with valid driver's license. Offer available to customers who must 1. Test drive a vehicle 2. Complete Credit application 3. Complete write-up on a new vehicle purchase 4. Were not able to come to an agreement on a new car purchase. 5. Must bring printed email at time of write up. Not valid for those whose credit does not qualify for loan. Limit one per household. Offer applies to new vehicles only.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한국교회사 이야기

# 한국에서 성경을 맨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김인수 목사  
미주장신대 전 총장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는 생명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은 최근까지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고집하고 기타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평신도들에게는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되었고, 오직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선교지에 가든지 그 지방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없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된 이승훈의 북경에서의 영세로부터 80년이 지나도록 쪽복음서 하나 번역하지 않았다. 교리서 등만 번역하여 가르쳤을 뿐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신교는 처음부터 성경의 교회였다.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시작한 16세기 초부터 "오직 성경

만"(sola scripture) 절대적이라는 명제를 내걸고 루터는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했고, 장로교회의 비조인 요한 칼빈 역시 그의 모국어인 불란서 말로 성경을 번역했다. 틴데일이나, 위클리프도 자기들의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평신도들에게 읽게 했다.

한국에서의 성경번역 역사는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말 성경이 만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먼저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그 사적은 다음에 기술하기로 하고, 오늘은 누가 최초로 성경을 전수 받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816년(조선조 순조 16년) 영국 군함 올체스트(Alceste) 호의 선장 맥스웰(M. Maxwell)과 라이라(Lyra) 호의 선장 홀(B. Hall)은 중국에 오는 영국 국왕의 사절 앰허스트(Sir J. W. Amhurst)를 천진(天津) 하구까지 호위하여 왔다. 이들은 한국의 서해안 일대를 탐사하고 해도(海圖)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당시 영국은 해양 대국으로 그 영향력을 온 세계에 뻗치고 있던 때여서 각지의 해도가 필요했다. 그들은 한국으로 항진하여 그 해 9월 서해안 군산만(群山灣) 마량진(馬梁津)에 정박하였다.

마량진 첨사(僉使) 조대복(趙大福)

은 문정을 위해 승선하여 한문을 사용하여 필담(筆談)으로 이 배의 국적, 도래 목적, 한문 해독 여부 등을 물었으나 의사가 소통되지 않았다. 그는 선원들로부터 서적, 지구의(地球儀), 거울 등의 선물을 받고 돌아와 그들이 원하는 식량과 식수를 공급해 주었다.

조대복이 배 위에 올라갔을 때, 선장은 그에게 한문 성경을 한 권 기증했다. 이 일이 한국인으로 맨 처음으로 성경을 손에 친 사건이다. 조대복은 한자 이름 그대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4천년의 유구한 우리 역사에서 맨 처음으로 성경을 손에 친 사람이 된 것이다. 그가 그 성경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을 만한 실력이 못되었을 것이고, 읽지 않았다면 그 생명의 말씀에 접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조대복은 한국인으로 최초로 성경을 받은 사람으로 한국교회 역사에 그 이름을 남겼다.

바실 홀은 영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 서해안 및 류큐 열도의 항해기"(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를 저술하여 1818년에 출판하였다. 이 책은 하멜이 쓴 항해기와 더불어 한국을 유럽에 소개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이 책에는 한국의 풍속화가 들어 있어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후에 한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한 캐나다 선교사 게일(J. Gale)이 쓴 글에 보면, 라이라 호의 선장 홀은 영국으로 귀환하는 도중 세인트 헬레나(St. Helena) 섬에 들러 그 섬에 유배되어 있던 나폴레옹(Napoleon)을 만났다. 그는 나폴레옹에게 조선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가 스케치한 조선의 그림들을 보여 주었더니 흥미 있게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였다.

한국에 주재(駐在)하는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반세기 전에 선교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을 다녀갔던 선교사들이 몇 명 있다. 이들은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살면서 선교 사역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내한했던 사람들로 한국교회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목사는 프리시아계 독일인으로 의사였던 칼 귀츨라프(Karl Gützlaff)이다. 그는 1803년 7월 독일에서 유대계 독일인으로 태어났다. 그는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발상지였던 할레(Halle)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일

찍이 선교사가 될 결심을 하고 준비하다, 1826년 네덜란드 선교회의 파송을 받고 동남아 자바(Java)의 바타비아(Batavia)에 1827년에 도착하였다. 그 후 그는 중국으로 떠나 1831년 요동반도를 거쳐 마카오에 이르게 되었다. 귀츨라프는 그가 마카오에 도착했던 1831년 6월, 중국 동해안과 만주를 거쳐 돌아오는 약 6개월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이 여행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귀츨라프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이 선교 여행에서의 성과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 동인도회사는 군함 로드 앰허스트(Lord Amherst)라는 1천 톤급의 무역선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교역을 하기 위한 항해를 준비하였다. 이 때 이 배의 선장이었던 린제이(H. Lindsay)는 귀츨라프와 친분이 있었으므로 귀츨라프에게 통역, 선의(船醫), 선복(船牧)의 자격으로 승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귀츨라프는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에 오는 첫 목사이자 선교사로서 기록을 남겼다. 그가 한국에 와서 성경을 전한 일과, 주기도문을 번역한 일, 그리고 감사 씨를 주고 간 사적에 대해 다음에 상세히 기술하겠다.

(계속)

## A Late Walk (늦은 산책)



배효식 교수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ut a leaf that lingered brown,  
Disturbed, I doubt not, by my thought,  
Comes softly rattling down.

I end not far from my going forth,  
By picking the faded blue  
Of the last remaining aster flower  
To carry again to you.

### 시인에 대하여

로버트 후러스트(Robert Lee Frost/ March 26, 1874-January 29, 1963)는 미국의 시인이다. 그는 20세기 초 미국의 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의 도시생활을 그리기보다 오히려 시골의 삶을 다루었다. 그는 미국의 존경을 받는 많은 시인들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명예로운 Pulitzer Prizes for Poetry 상을 4번 씩이나 받았다. 그리고 시작품으로 인해 명예로운 Congregational Gold Metal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매사추세츠로 이주했으며 다트머스대학교에서 공부했다. 하버드대학교에도 들어갔으나 병 때문에 중퇴한다.

1912년 그는 가족과 더불어 영국에 배를 타고 항해했다. 다음해 그는 영국에서 "한 소년의 의지"(A Boy's Will, 1913)라는 시집을 출판했다. 그곳에서 유명한 Ezra Pound와 같은 시인들을 만나 출세의 길을 걷게 된다. 다음해 이어 "보스턴의 북쪽"(North of Boston, 1913)을 출판했다. 1915년 다시 이 시인은 미국으로 돌아와 뉴햄프셔에 농장을 산 다음 이곳에서 생활하며 시를 썼다. 그는 오랫동안 미들베리대학교와 미시건대학교에서 시를 가르치기도 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 명예졸업장을 받았으며 프린스턴, 옥스포드, 캠브리지대학교에서도 명예학위를 받았다.

### (A Late Walk) 감상

이 시의 제목이 말하듯 늦가을에

걷는 산책으로 이 시인은 산보를 하면서 건조를 뱀 뱀을 걷고 있다. 때는 늦은 가을 초겨울이 닥쳐오는 계절이라. 한 여름철 땀뻗어 서 있던 새싹들이 지금은 베어져 추위와 심한 서리 때문에 땅에 부드럽게 숨죽여 어둠에 잠겨 누워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정원 근처의 잠깐 새들이다. 여름철에 힘있게 이리저리 날며 즐기던 새들은 지금은 추운 겨울을 맞이해 살아남기 위한 투쟁으로 그들의 순진성을 상실한 것으로 느껴진다. 시인은 또 지금 벌거숭이가 된 나무만을 쳐다보고 있다. 그가 여름 내내 지니고 있던 나무 잎들이 날아가고 앙상한 나무가지와 벌거벗은 몸둥이뿐이다. 시인은 갈색으로 변하여 땅 위에 떨어지는 나무잎을 바라보면서 무슨 사색에 잠긴 것일까.

이 시인은 산보를 멈추며 한때 찬란하게 피어 자랑하며 미를 장식했던, 그러나 지금은 시들어가는 에스터 꽃 한 송이를 따면서 그 꽃을 누군가에게 주

어 기쁨을 찾게 하려고 한다. 과거에도 누군가에게 주었던 꽃이다. 이 시인은 그가 전에 사랑했던 그 누군가에게 그 꽃의 모습으로 다가가려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인은 꽃을 따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위로와 만족을 위해 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따른다.

이 시의 전체가 삶의 시들어짐 또는 마지막의 상징이요 자연의 미 자체도 시든다는 진리의 상징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시인은 에스터 꽃을 통해 인간 심령의 재생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인이 꺾고 있는 이 에스터 꽃은 시들어 가지만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기쁨을 준다는 재생의 정신(Renewal Spirit)의 상징인 것이다.

사랑이 넘치도록 담긴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분은 바로 시들어버린 잔디 밭에서 침묵하며 쉬고 있는 이 시인의 어머니이리라. 그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 없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리라.

When I got up through the mowing field  
The headless aftermath,  
Smooth-laid like thatch with the heavy dew,  
Half closes the garden path.

And when I come to the garden ground,  
The whir of sober birds  
Up from the tangle of withered weeds  
Is sadder than any words.

A tree beside the wall stands bare,



# 여드름, 성공률 99%

##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하나님의 약속 요한

김현식 | 홍성사 | 228쪽

남한과 완전히 달라진 북한의 말과 글 체계에 따라 성경을 번역 중인 평양성경연구소의 첫 작품. 요한 복음 영어 본문을 평양말로 직역하고, 영어 열풍이 일고 있는 북한에서 영어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영어와 평양말을 함께 수록했다. 끝에는 평양말로 번역한 찬양가 7곡의 가사를 부록으로 담았다.



####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9가지 포인트

게리 채프먼 | 생명의말씀사 | 200쪽

한인들에게도 유명한 스티디셀러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 게리 채프먼의 신작. 세계적인 가정사역자이자 결혼문제 전문가인 저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 모든 부부와 예비 부부들이 꼭 알아야 할 9가지 항목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실제적인 지침을 책에 담아놓았다.



#### 디데이

김원호 | 교회성장연구소 | 292쪽

알래스카 켈거리순복음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저자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휴거'라는 단어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의 눈초리를 견어낼 것을 권면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며, 우리는 '디데이', 그 날이 되면 오랜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는 축제의 장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한다.



#### 내 남자는 불량품

데이비드 머로우 | 터치북스 | 2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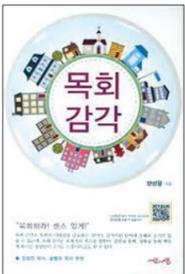
세계적인 남성 사역자인 저자는, 남자는 배 속에 있을 때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여자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상적인' 여자와 '불량품' 남자가 만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남자의 속마음을 형성하는 근원부터, 남자의 몸과 정신과 영을 심도 깊게 살핀다.



### REVIEW

## 행복한 목회, 성공하는 목회에는... 감이 있다!

###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양성필 목사 <목회감각> 출간



목회감각

목회에 대한 수많은 방법론과 성공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회자들에게 이것이 현실로,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는 그저 꿈으로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행복한 목회에는 말이나 글로는 설명되기 힘든 '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미묘한 감에 대해, 남가주 지역의 글쟁이로 꼽히는 양성필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가 책을 냈다. 제목은 '목회 감각'.

올해 42세. 아직 젊다. 이렇게 젊은 목사가 목회의 감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있을까? 그러나 그는 부교역자 시절부터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적, 교회적 원칙이 목회 현장에서 수학공식처럼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목회자의 설교, 리더십, 영성이 중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목회자의 독특한 감각이다.

그는 자신이 선배들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이 목회의 감각에 대해 책을 펴낸 것이다.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책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소

주제들도 "반대만 안 해도 부흥한다", "표정도 설교다", "카리스마와 칼 있 으마", "구두쇠 목사가 환영받는다" 등 재미나다.

이 책은 양 목사가 여러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배운 내용, 도전받은 경험을 중심으로 털어 놓으며 시작된다. 이 책에 대해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는 "저자가 훌륭한 2인자의 삶을 살면서 탁월한 리더로부터 배운 원리를 다른 목회 지혜서"라고 평했고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는 "목회에 대한 감각, 감성, 눈물이 담긴 책"이라고 평했다. 이 책은 양성필 목사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목회의 거장들의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다.

양 목사는 "이 책이 목회자들에게



양성필 목사

는 도전이 되고, 성도에게는 목사들을 만나"고 전했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김나라 기자

###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http://www.sejongbiotech.us)

###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복음방송국2층)

##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9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패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 \$50

한달분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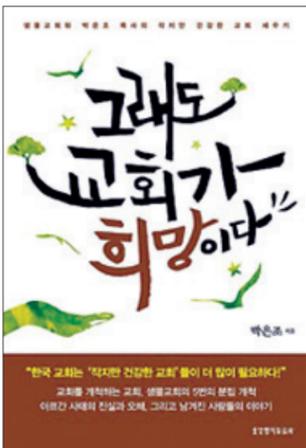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신간

분립 개척, 아프간 사태... 30여년의 목회 고백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의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는 한국교회에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믿을 뿐 아니라 이를 몸소 실천한,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의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의 분립 개척과 학교·담임목회 사역 등에 대한 보고서이다.

박 목사는 손봉호 교수(전 동덕여대

총장)가 이끌던 서울영동교회 담임목회자로 17년간 봉사하면서 세 곳의 교회를 분립 개척했고, 네번째 분립 개척을 할 때는 자신이 직접 뛰어 들었다. 이때 세운 교회가 분당샘물교회다. 이후 그곳에서 14년 섬기던 그는 또다시 성도 150명과 함께 용인 동백 지역으로 떠나 은혜샘물교회를 분립 개척했고, 성도 20명과 관교 지역에서 새롭게 세운 은혜샘물교회도 맡고 있다. 뿌리인 서울영동교회를 포함해 총 12곳의 교회가 한 가족을 이루게 된 것.

그는 자신이 직접 분립 개척지에 뛰어든 것에 대해 "서울영동교회를 17년간 섬기던 저를 교회 개척으로 부르시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세계는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다"며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박은조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17년간의 목회 자료 파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개척에 뛰어든다. 교회 이름조차 성도들의 선택으로 결정했다. 지금은 그 이름

이 좋지만, 당시엔 탐탁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비전을 갖고 있던 학교 사역, 장애인 사역, 구제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지론은 이렇다.

“교인 1만 명 이상의 대형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분립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한 교회만 계속 있었으면 교회가 그렇게 자라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프간 피랍 사태 대한 고백도

박은조 목사나 '분당샘물교회' 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지난 2007년 국내를 떠돌아다녔던 '아프간 피랍 사태'이다. 박 목사는 이 책에서 사태의 당사자로서 직접 Q&A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려주고 있다.

그는 먼저 "비록 봉사를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을 만들어 국민들

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기 그지 없었다"며 "한국교회가 그 동안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은 것 또한, 샘물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도 고백한다. "심성민 형제님이 순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 방에서 눈을 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 속에 가득했습니다. ... 지금 제 부모요 제 아비인 한국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팔짱을 끼고 '하나님, 저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욕을 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성숙한 대응'도 빠짐 없이 기록했다.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며, 이는 하루 네 차례의 기도회와 '목장'의 힘이었다고 전한다. 대응 과정에서 피랍자의 부모님들 중 믿음이 없



박은조 목사

던 이들은 처음에 많이 힘들어 했지만, 석방 후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고 고백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피랍됐던 이들 중 일부는 아프간 사람들을 섬기러 다시 떠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프간 사건은 분명 샘물교회의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물교회 성도들은 이 시련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 순교의 영성은 샘물교회 식구들에게만 주신 가르침이 아니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 주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대용 기자

영화

영화 흥행 후 〈무한도전〉 등 유사 소재 프로그램 다수 방영... 성경적 관점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관상’을 보는 사람들



영화 〈관상〉의 포스터

최근 영화 〈관상〉이 흥행하면서 〈무한도전〉 등 '관상'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들도 다수 방영되고 있다. 물론 화제가 된 영화의 내용을 잠시나마 차용한 것이지만, 그만큼 관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영화의 흥행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관상(觀相)은 사전에서 "상을 보아 운명이나 재수를 판단하여 미래에 닥칠 흉사를 예방하고 복을 부르려는 점법(占法)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흔히 얼굴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손·발의 모양이나 자세, 행동 심지어 말투나 눈빛까지 포함된다.

재미있는 것은 관상도 점(占)의 일종이긴 하나, 점이라는 사람의 생년월일 등 주로 변하지 않는 것을 토대로 앞일을 예측하는 것과 달리, 관상은 세월에 따라 다소나마 변하는 '생김새'를 그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체격이 변하면 그에 따라 관상

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여러 관상가들의 견해다.

요즘 한국에서 불고 있는 '성형 바람'을, 관상의 이런 '가변성'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관상학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지금의 얼굴을 뜯어 고쳐, 좋은 관상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 성형을 감행하는 이들 중 일부는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최근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은 '관상'을 소재로 방송을 제작,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관상 역시 지금 알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같은 불안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런 관상이나 점에 지극히 '무속적'이라는 데 있다. 또 인생을 개척의 대상이 아닌 우연과 요행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다.

관상에 대해 설명한 한 백과사전조

차 "인상을 보는 것이 심상을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마음의 상태와 변화는 물론 인상에 다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마음은 깨닫고 반성하고 느끼고 다듬을 수 있는 것이기에 평소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바로잡아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와 나머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열상 16:7)는 말씀을 읽었고 또 그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외모'를 보고

사람의 현재나 미래를 판단하는 관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는 관상에 대해 "사람의 운명이 관상에 의해 결정된다면 애써 노력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관상에 매달리는 것처럼 무모하고 부질없는 짓이 또 있을까 싶다. 타고난 관상보다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Advertisement for WCIU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featuring the text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and contact information for Pasadena, CA.

Advertisement for NB CORSET, a back brace. It features the headline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and lists features like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and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It also includes a list of conditions it treats, such as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and '허리통증'.

Advertisement for KSB 헬시케트 (Kishibe Soul-Bond). It features the headline '따뜻한 겨울, 건강을 주는 살아 숨쉬는 품의 섬유' and describes the product as a '음이온 원조 건강이불' (ionic health blanket). It lists benefits like '말과 소가 덮어도 체험이 나오는 음이온 건강이불' and '수족냉증, 저리고 쥐는 증상, 관절염, 아토피, 천식'.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있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철공 용접, 게이트 모터 수리**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경남 철공소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울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 폐섬유화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되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절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 백악관 이민법 재시동, 한인교계 대표도 참석



오바마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민법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Pete Souza)

13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백악관에서 만나 이민법 개혁에 관해 논의했다. 최근 연방정부 섯다운으로 인해 주춤했던 이민법 논의가 백악관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과거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들과 이민법 문제를 자주 의논해 왔다. 조 바이든 부통령도 참석한 이 자

리에는 리스 앤더슨(NAE 대표), 조엘 헌터(노스랜드교회 담임), 러셀 무어(SBC 윤리와종교자유위원장), 짐 윌리스(소저너스 대표), 가브리엘 살게로(전국라틴노복음주의협회 회장) 등 미국 기독교계의 대표적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한인 가운데에는 한인교회 및 사회에 잘 알려진 임혜빈 회장(KCCD)이 참석했다.

종교계 지도자들은 현 이민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드러내며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회를 압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화당과 하원이 초당적 지지를 얻는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 교회 신년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하나?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가며 2014년 신년이 다가오고 있다.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목회자들은 이맘 때쯤이면 신년 계획을 세우는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 해의 향방을 좌우할 신년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까?



정인수 목사

도 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속국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느헤미야와 같이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담임 정인수 목사는 이번 주 칼럼을 통해 "목회자가 가지는 목회 비전은 목회 사역의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목회 비전이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꿈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목회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구체적인 그림이다. 꿈은 결국 교회와 목회의 변화를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비전은 때때로 영적 안식 기간에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현장을 떠나 선교지로,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는 타 교회 방문으로, 혹은 깊은 산 속에서 자신이 지나온 사역과 목회 경험에 대해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때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도를 통해 내일의 변화와 비전을 위한 계획을 서서히 숙성시켜 나가야 한다.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변화와 비전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입안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새해를 위한 밑그림과 사역 계획을 가지고 조용한 기도원이거나 수양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 볼 수 있다. 나 자신은 매해 한 두 차례 조지아 북쪽 산장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음성을 듣는 영적 안식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수 목사는 "목회자가 갖는 비전은 각 교회의 신년도 사역 계획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신년 목회 계획은 그 교회가 가지는 사역 방향성과 그 진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성경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신중한 계획과 기도 아래 그 성벽 괴로움에서 출발되는 신비한 면도 있다. 결국 목회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이루어 질 때 그 목회가 진정한 상승 곡선을 이루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 정인수 목사는 "시간을 쪼개어 리더십에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연구해 보는 것도 목회의 비전을 세우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읽어가며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청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묵상할 수 있다. 아울러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역사를 반추할 수도 있다. 지난날 위기와 아픔이 왜 일어났으며 그것이 현재 교회 상황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질문해 볼 수 있다. 현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지역 사회의 안고 있는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살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인수 목사는 "목회자가 갖는 비전은 각 교회의 신년도 사역 계획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신년 목회 계획은 그 교회가 가지는 사역 방향성과 그 진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성경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신중한 계획과 기도 아래 그 성벽 괴로움에서 출발되는 신비한 면도 있다. 결국 목회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이루어 질 때 그 목회가 진정한 상승 곡선을 이루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목사는 "연합장로교회는 다음 해의 사역 방향 설정을 위해 여름이면 당회원들이 모여 2박 3일 비전 컨퍼런스를 갖는다. 여름에 갖는 이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 지나간 한 해의 사역을 돌아켜 보며 반성과 회고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방향성을 모색하게 된다. 또 당회원 간에 소원했던 질적인 교제를 나누기도 한다. 토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해에 주시는 비전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리해 나간다. 각 교회의 신년 계획은 그 교회의 미래를 향한 청사진이다"라고 전했다.

### IEA 목사 및 선교사 후보자 위한 안수 교육 개설

## "새로운 시대 이끌 전문 사역자 양성할 것"

1983년 설립된 국제복음주의협회(IEA, International Evangelical Association)가 목사 및 선교사 후보자 안수교육을 한다. 특별히 이번 과정은 교육, 의료, 음악, 상담 등 전문분야에서 사역하길 원하는 후보자들을 위해 개설됐다.

IEA는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된 초교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초중고대학 교육, 의료 선교, 교회 개척, 목회자 연장 교육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참신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전문사역자로 세워 함께 시대적 소명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학교 졸업자(남, 여)로서 전도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목회학 혹은 선교학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전도사 혹은 선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평신도 선교사로서 10년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한 자,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과 신앙생활 20년 이상인 자다.

이 자격에 부합되는 이들은 IEA가 주관하는 목사 안수 코스를 이수한 후, 음악, 교육, 목회, 상담, 복지, 채플린 등 전문 목사 라이선스를 받을



국제복음주의협회가 목사 및 선교사로 지원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사진은 최근 열린 목사안수식.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제52차이며 1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서류 심사에 합격하면 미주리 주에 위치한 Global Gateway University(843 Parr Rd. Wentzville, MO 63385) 내 IEA 국제본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서울 기독교회관 801호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이 단체는 이미 남미 페루에서 2009년도부터 현지인 목회자 연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봄에는

아마존 정글 사역자 100여 명에게 목사안수를 하고 파송하게 된다. 이 단체의 자매 및 협력기관으로는 Midwest University, 국제교육협력기구(IEC),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GLI), Global Gateway University, 국제상담협회(ICA), Kimnet, KWMC, 한국기독교교회교연맹, 세계크리스찬 스콜네트워킹 등이 있다. 문의) info@ieawm.org (636) 639-9221

김나래 기자

#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증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myopenbank.com



#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 오픈뱅크의 커뮤니티 사랑법! 청지기 프로그램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재단]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기독교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수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표일자: 2014년 2월 28일 (금)**

213.892.1197 | 1000 Wilshire Blvd., # 250, Los Angeles, CA 90017

지원금 수혜자는 오픈뱅크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www.myopenbank.com](http://www.myopenbank.com)



###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동 재단은 매년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픈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종래의 자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CEO MIN KIM

**Wilshire Office**  
1000 Wilshire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17  
Telephone (213) 892-9999

**Fashion District Office**  
747 E. 10th Street, Suite 310,  
Los Angeles, CA 90021  
Telephone (213) 892-9999

**Gardena Office**  
15435 S. Western Ave., Suite 100-D,  
Gardena, CA 90249  
Telephone (310) 354-6000

**Aroma Office**  
3680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 90010  
Telephone (213) 401-3500

**Buena Park Office**  
(Opening Soon)  
5141 Beach Blvd., Unit E&F  
Buena Park, CA 90621

